

YWCA 목적

젊은 여성들이 하나님을 창조와 역사의 주로 믿으며 인류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지매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자기 삶에 실천함으로써 정의 평화 창조질서의 보전(保全)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건설함을 목적으로 한다.

YWCA 기도문

기록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계 125개국과 한국에 YWCA를 세워주시고
 인류의 평화와 건강한 사회를 위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니 감격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땅에 정의가 강물같이 흐르게 하옵소서
 풍성한 생명살림으로 평등한 하나의 세상 되게 하옵소서
 사랑과 책임으로 섬기며, 나누며, 겸손히 순종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낮은 데로 임하며, 서로 눈물을 닦아주며
 생명의 노래를 부르는 Y운동체로 늘 깨어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손을 잡으시어 좁은 길을 걸으며
 하나님나라의 새 역사를 꿈꾸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한국YWCA의 전국 회원YWCA 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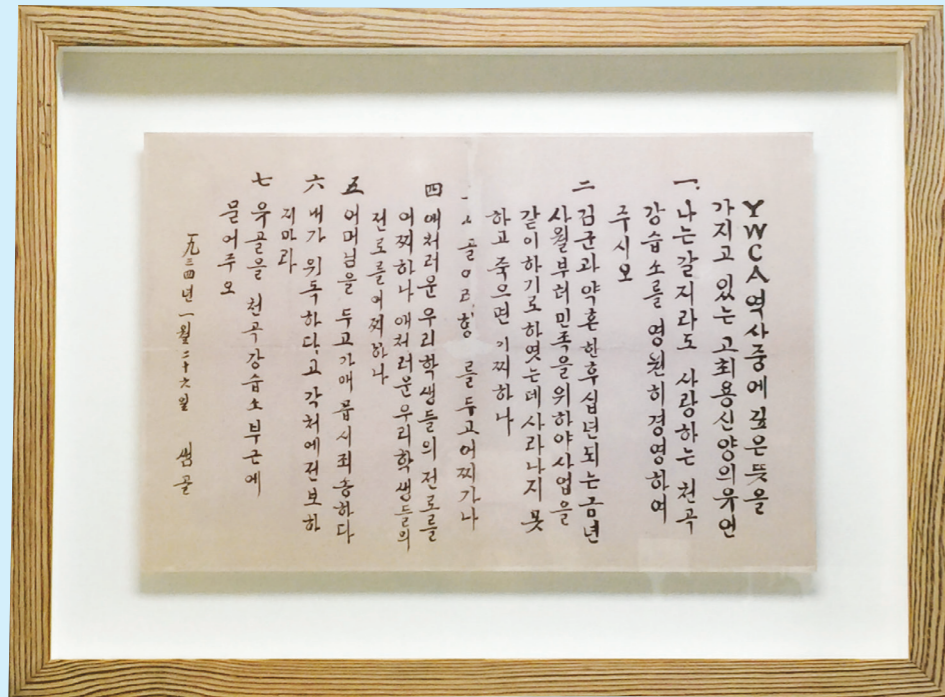
가	다	서 울	울 산	천 안
강릉 033.651.1385	대구 053.652.0070	서천 041.951.6400	원주 033.742.6090	청주 043.265.3700
거제 055.682.4950	대전 042.254.3035	성남 031.708.2503	의정부 031.853.6332	춘천 033.254.4878
경주 054.772.8141	동해 033.531.3007	세종 044.865.2432	익산 063.857.8910	충주 043.848.3240
고양 031.919.4040	마	속초 033.635.3523	인천 032.424.0524	타
광명 02.895.1966	마산 055.246.8746	수원 031.252.5111	자	통영 055.646.2547
광양 061.762.0012	목포 061.242.1611	순천 061.744.7990	전주 063.224.5501	파
광주 062-609-1300	바	안동 054.854.5482	제주 064.711.8322	파주 031.945.5998
김해 055.332.6000	부산 051.441.2221	안산 031.483.6536	제천 043-645-2580	평택 031.651.7701
나	부천 032.668.9700	안양 031.455.2700	진주 055.755.3463	포항 054.274.4444
남양주 031.577.7762	사	양산 055.367.1144	진해 055.542.0020	하
남원 063.632.7002	사천 055.833.2344	여수 061.654.2161	창원 055.283.9488	하남 031.793.7771
논산 041.736.7393	서귀포 064.762.1400			

한국 YWCA

- 이달의 생각
3월의 기억들
- 특집
다시 이야기하는 YWCA의 청년성
- 이달의 현장①
사무총장 해외연수
- YWCA 탈핵 불의날 캠페인 1주년 회보



최용신은 1931년 YWCA의 파송을 받아 경기도 화성(지금의 안성) 샘골에서 최초의 여성 농촌계몽운동가로 헌신하다 1934년 짧은 운명을 달리했다. 그는 짧은 생애에서 온 몸을 불사르듯이 자신을 내던졌다. 그는 이 사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정확히 꿰뚫고 있었다. 그는 목숨을 내놓은 헌신적 사랑으로 완전히 지역 속에 녹아들었다. 그는 행동하는 지식인이었으며 사회의 고난에 참여하는 신앙인이었다. (양미강 목사의 '최용신 정신잇기-기독교사회운동의 발전을 위해' 발제 중에서 발췌)



샘골에서 YWCA로 보낸 유언장

YWCA OF KOREA

최용신의 사업은 YWCA의 첫 번째 사업이었다. YWCA는 협성신학교의 YWCA 회장인 최용신을 샘골에 파송하고, 월 30원씩 생활비를 지불하였다. 그리고 감리교인이며 YWCA의 지도자였던 김활란 황에스더 등이 현지를 다녀가고, 최용신이 죽었을 때는 흥에스더 당시 YWCA 회장이 샘골에 와서 조사를 하며, 그의 무덤에 비석까지 세워 주었다.

최용신이 죽은 다음 해방 이후에 그녀의 유언장이 처음으로 세상에 해 별을 보게 된 것은 52년만이다. 물론 최용신이 죽은 직후 신문이나 잡지를 통해 여러 번 발표되었지만 이 유언장은 유언을 직접 들었던 학원 이사인 안홍팔의 기록에 의해서 당시 담임목사였던 전재풍의 필체로 한지에다 붓으로 쓴 유일한 유언장이었다.

그때까지는 그런 유언장이 있었는지 아는 사람이 별로 없었다. 작성할 때 참가한 몇 사람과 그것을 보관했던 YWCA와 그것을 전달 받은 독립기념관 뿐이었다. 그런데 1987년 8월 15일 독립기념관이 문을 열고 최용신 유품전시회를 가짐으로 비로소 알려지게 된 것이다. (제1회 최용신 학술심포지움 자료집 '최용신의 농촌사업과 현양의 제문제 연구'에서 발췌)



표지이야기

여성의 이름으로, 또 어머니의 이름으로 거리행진을 나섰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월성1호기 수명 연장 결정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작은 마음들을 모아 탈핵 세상을 꿈꾸는 것입니다.

목 차

04	이달의 생각 3월의 기억들 김기동
05	월례아침기도회 하나님의 평화 장윤재
06	연합회 사무총장 보고 3월의 한국YWCA 유성희
	특집 다시 이야기하는 YWCA의 청년성
08	기획 ① YWCA청년운동의 회복을 기대하며 정동신
10	기획 ② 대학·청년Y가 우리 시대 평화를 말하다 청년평화포럼 기획단
13	기획 ③ 평화를 이야기하는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할 수 있는 일 윤소라
15	탈핵 이슈와 동향 잊지말자 후쿠시마 멈춰라 월성1호기! 한영수
17	지역의 탈핵운동 청소년 탈핵운동과 삼척시 신규 원전 반대 동해YWCA
19	YWCA 탈핵 불의날 캠페인 1주년 화보
	칼럼
24	평화 3.1정신과 YWCA운동의 과제 유성희
26	여성 온라인 공간의 여성 혐오 정서 구조 김수아
28	청년 2014년 키다리학교 활동나눔과 2015년 운영진 워크숍 이지는
30	원로에게 듣는다 과거에 안주하지 말고 꿈꾸는 YWCA가 되라 편집실
32	이달의 현장 ① 사무총장 해외연수 전현숙
34	이달의 현장 ② 안양YWCA 시민햇빛발전소 준공식 편집실
36	세계YWCA 버저닝 2035 위한 세계YWCA 이사회 원영희
38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미국연합감리교회 박희로 목사 편집실
40	크리스천의 눈으로 보는 문화 영화 '사랑에 대한 모든 것' 최대광
42	회원YWCA 모금현장 모금워크숍 이후 열린 생명나무 음악회 부산YWCA
44	북한어린이돕기 YWCA어린이집과 함께 한 캠페인 김수연
46	연합회 소식
48	회원YWCA 소식

4월 한국YWCA 주요일정

- 3월 27일~28일 에너지리얼워크숍
- 4월 8일~10일 제2차 1단계 실무자 교육
- 4월 10일~11일 생명꿈나무들봄센터 교사교육
- 4월 14일 싱크머니 협약식
- 4월 15일 싱크머니 씨티강사교육
- 4월 15일~16일 전국회장단연수
- 4월 22일~23일 2015년 제2차 직업훈련 담당 활동가 워크숍

3월의 기억들

글 | 김기동 (연합회 실행위원, 생명비전연구소 위원장)



사순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억하고 준비하며 회개와 절제로 기다리는 시간이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구원은 죽음에서 비롯했다. 죽었기에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그 부활로 죽음의 세력을 물리치는 동시에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선물로 주셨다.

사순절에 들어 있는 40이라는 수는 성서에서 새로운 것을 시작하고 중요한 변화에 직면할 때 거치는 시간으로, 인간의 무능함에 대해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가 임하시는 시간을 상징한다. 노아의 때 인류 멸망의 대홍수 동안 40일 비가 내렸고, 노예였던 히브리인들이 출애굽하여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까지 오로지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각하는 광야 유랑 헛수가 40년이었고, 예수가 복음전도를 시작하기 전 유대 광야 시련을 통해 인간적 고뇌와 번민을 벗어버리게 된 날수가 40일이었다. 사순절은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앞서 벗어버릴 것은 벗어버리고, 덧입을 것은 덧입으면서 진정한 신앙과 삶의 의미를 찾는 귀한 기회의 시간이라 할 수 있다.


그런가 하면 사순절은 영어는 Lent, 독일어는 Lenz 인데 이 단어는 또한 '봄'을 의미하며, 만물의 소생이라는 어원에서 비롯한다. 겨울 내내 얼어붙은 땅, 이파리 하나 없이 앙상한 가지, 온통 잿빛으로 숨죽인 만물들이 신기하게도 이 사순절 때가 되면, 바람은 더 이상 찬 기운이 아닌 따스함으로 세상을 감싸고, 나뭇가지는 붉은 색을 내비치다가 어느새 여리고 푸른 움을 터뜨

리고, 땅은 파릇파릇 새싹으로 가득 차며, 새로운 생명의 활기를 내뿜는다. 이렇게 사순절은 죄인된 인간만을 살리는 시간이 아니라, 온 자연 만물을 살리고 생명의 향연으로 이끄는 시간이다.

사순절과 함께 살아가는 3월, 우리는 또 다른 겹겹의 기억 안에 서있다. 97년 전 이 땅 방방곡곡을 울린 만세 함성은 일제의 식민통치에 대한 저항일 뿐만 아니라 사랑, 정의, 평화의 세상을 만들기 위한 담대한 용기였음을 기억한다. 여전히 폭력과 싸움, 불의와 억압, 그리고 몰생명의 가치들이 난무하는 이 때, 그 함성에 대한 기억은 우리가 되찾고 결단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해준다.

또 2011년 3월 11일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에 대한 기억은 바로 우리가 직접 세상의 끝을 보았다는 데서 우리를 전율하게 한다. 정지된 핵발전소를 재가동시키려는 일본이나, 후쿠시마만큼 노후된 월성1호기를 안전하다 규정하여 수명을 연장하려는 우리나라를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다시 기억해내야 할 것인가!

'No More Fukushima!' 죽음의 불이 아닌 생명의 불을 켜자는 이 외침으로 가득찬 불의날 캠페인도 3월로 1년을 맞이한다. 절박한 심정으로 시작하였지만, 의로운 신 하나님은 소망으로 함께 하신다. 고리1호기 연장 반대 서명에 동참한 9만여 회원들의 염원이 우리의 다음 기억 속에서는 감사와 감격으로 울리기를 소망한다.

사순절, 세상을 살리는 일에 우리 모든 YWCA 회원들이 함께 다시 내딛는 또 하나의 발걸음을 소망한다. 

하나님의 평화

글 | 장윤재 목사(이화여대 기독교학과 교수)



빌립보서 4장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2015년은 광복 혹은 분단 70주년이다. 광복은 기쁜 것이지만 분단은 슬픈 것이었다. 우리에게는 기쁨과 슬픔이 함께 왔기에 상반되는 감정이 교차한다. 지난 70년간 지구상에는 수많은 전쟁이 있었고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평화에 대해 다시 묻고 평화의 '깊이'와 '넓이'와 '시제'에 대해 새롭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


먼저 평화의 '깊이'에 대해 생각해 보자. 독일의 통일 과정에서 통일은 되었지만 '오시'(동독인)와 '베시'(서독인)는 이질적인 정서와 극심한 빈부차이로 '새로운 분단' 아래서 신음해야 했다. 우리는 한반도에서 이런 통일을 원치 않는다. 물리적인 장벽을 허문다고 해서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지고 통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교훈을 우리는 독일에서 배웠다.

진정한 통일을 위해서는 평화통일교육이 절실하다. 크리스천이 추진하는 평화교육은 "이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은 그리스도의 평화"(요 14:27) 혹은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빌 4:7)라는 성서의 평화를 가르치는 교육이어야 한다. 평화를 부르짖는다고 해서 평화가 오는 게 아니다. 정의가 강같이, 공의가 물같이 흐르게 할 때 찾아오는 게 평화이다.

다음으로 평화의 '넓이'에 대해 생각해 본다. 세계교

회협의회(WCC)는 지난 2013년 부산에서 제10차 총회를 열어 '정의로운 평화에 대한 에큐메니컬 선언'을 발표했다. 이 선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평화에 대한 개념이 확장되었다는 점이다. 이 선언은 평화의 개념을 세분하여 그간 우리에게 익숙한 '민족 간의 평화'라는 개념 외에 세 개의 개념을 더하여 '공동체 안에서의 평화', '시장 안에서의 평화', 그리고 '지구와의 평화'를 추가했다. 올해 한국YWCA의 평화운동도 그 사유와 행동의 지평이 이와 같이 넓혀지길 기도한다.

마지막으로 평화의 '시제'에 대해서는 평화를 앞으로의 희망사항이 아니라 현재의 삶으로 만들자는 제안을 드린다. 우리의 평화운동은 생활 속의 평화운동, 문화 속의 평화운동이 되어야 한다. 평화는 결국 사람이 만나는 것이다. 서로 다른 생각과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만나 더불어 사는 삶을 만들어가는 연습은 통일 이후에도 중요하지만 통일 이전 '지금 여기'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평화를 향한 인간의 모든 이해와 상상력, 노력이 다 소진되어 가는 이 때, 오늘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이 '하나님의 평화,' 즉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사람으로서 감히 생각할 수 없는" 그 평화를 기도하고 앙망하고 전심으로 추구해야 할 것이다. "평화를 만드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 자녀라 불릴 것이다"(마태 5:9)라고 예수께서 축복하셨다. 이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가정과 특별히 한국YWCA 위에 함께 하시길 빈다. 

3월의 한국YWCA

글 | 유성희(연합회 사무총장)


3월입니다. 새봄, 새마음, 새출발의 기운이 곳곳에서 피어나는 계절입니다. 한국YWCA도 지난 2월에 열린 총회에서 새해의 사업이 결정되었고, 교육과 행사들이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올해는 24명의 신입회장과 12명의 신입사무총장이 새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복지관, 여성인력개발센터 등 부속시설도 신입관장 인사가 많이 있었습니다. 93년의 역사를 가진 조직이고, 지역의 개별 조직이 회원으로 소속된 연합회는 동일한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어려우면서 중요한 과제입니다. “YWCA는 사람이다”고 알려주신 박에스터 선생의 가르침은 각 사람이 가진 영성과 가치가 기독교운동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려주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YWCA는 훈련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신입회장 연수에 이어서 3월에는 신입사무총장 연수가 진행되었고, 현장의 실무 활동가를 위한 1단계 실무자교육이 진행됩니다. 훈련을 통해 선출되거나 임명, 채용된 모든 지도력은 개인의 생각이나 가치가 아니라 YWCA 목적을 따르는 삶을 다짐하게 됩니다.

5부지역위원회 담당 지역도 결정되었습니다. 경기지역은 고양, 북부는 인천, 동부는 대구, 서부는 여수, 중부는 대전YWCA가 지역위원회의 사무국을 맡게 되었습니다. 지역아카데미는 서울, 수원, 순천, 진주, 청주 YWCA가 지역단위의 교육을 맡아 진행합니다. 1년간 지역운동의 지원을 위해 수고하실 회원YWCA에 감사드리며, 새롭게 책임을 맡으신 분들을 위해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3월 11일은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일어난 지 4년이 되는 날입니다. 작년 3주기에 시작된 YWCA 탈핵 불(火)의날 캠페인도 벌써 1주년을 맞았습니다. 매주 화요일이면 어김없이 명동거리에 탈핵의 메시지가 울려 퍼졌습니다. 비오는 날도, 눈오는 날도, 캠페인 시간이면 신기하게 밝은 햇살로 변해서, 하나님께서 생명의 빛으로 늘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매번 깨닫게 하셨습니다. 52주 중 절반 이상을 회원Y에서 주관했고, 방학에는 청소년 캠페이너가 명동거리를 활기차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탈핵운동은 오랜 기간 동안 한국YWCA가 진행해 온 환경운동, 생명운동, 평화운동의 역사를 잇는 것입니다. 3월 월례기도회를 통해서 생명을 지키는 것이 곧 평화의 운동임을 절감하면서, 생명 감수성을 키우는 것이 일상에서 우리가 훈련해야 할 중요한 과제를 확인했습니다. 부산을 중심으로는 노후 원전 가동중단의 노력이 지속되고 있고, 전국적으로는 소비 중심의 우리의 생활을 소박하고 자연친화적으로 바꾸기 위한 문화 운동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원, 안산에 이어서 안양YWCA에서도 주민의 참여로 햇빛발전소 사업이 시작되었고, 부천에 이어서 고양YWCA가 방사능안전급식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점점 해야 할 일도 많고, 과제도 복잡해집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지향하는 것은 결코 거창한 꿈이 아닌데, 이루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결국 아름다움이 세상을 구원할 것’이라는 책 제목이 떠오릅니다. 결국, 세상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의 믿음과 실천이 세상을 아름답게 지킬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세상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 믿음을 현장에서 실천하기 위해 YWCA는 존재합니다.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수고하는 회원YWCA의 모든 활동에 관심과 참여와 따뜻한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세상에 새 기운을 불어넣는 YWCA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pecial
특집

다시 이야기하는 YWCA의 청년성

- 기획 ① YWCA청년운동의 회복을 기대하며 | 정동신
- 기획 ② 대학·청년Y가 우리 시대 평화를 말하다
| 청년평화포럼 기획단
- 기획 ③ 평화를 이야기하는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할 수 있는 일 | 윤소라

YWCA 청년운동의 회복을 기대하며

인류 역사가 지속되는 동안 평화는 과연 몇 년이나 될까? 어느 계층이든 인간의 삶 속에서의 진정한 평화란 무엇일까? 청소년과 청년들이 원하는 '평화'란 무엇일까? 평화를 주는 가장 큰 요건은 무엇일까? 전문가가 아닌 나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주제였다.



글 | 정동신 (연합회 Y아카데미
위원, 청주Y 이사)

올해 1월에 출간되어 사람들이 요즘 많이 읽는 '유엔미래보고서 2045'에 보면 기후 변화, 자원 고갈, 높은 실업률 등 인류의 삶에 많은 장애물이 등장한다. 또한 인류에게 곧 닥칠지도 모르는 상황들을 설명하는데 일자리를 소멸시키는 많은 새로운 기술들이 등장하고, '새로운 일'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술의 변화가 빨라질 수 있다는 설명이 나온다. 그리고 미래에는 노동시간의 변화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이 때문에 평생 한 직장에서 정규직으로 일하는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한다.

오늘날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일자리 문제의 해법을 찾고자 노력한다. 우리 사회도 예외는 아니다. 일자리 문제는 어른세대에도 적용되지만 현재 우리의 젊은 세대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은 2007년 '88만원 세대'가 처음 등장했을 때보다 더욱 어려워졌다. 처음 '88만원 세대' 문제가 거론됐을 때는 이러한 현실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과 이에 대한 관심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양상이 달라졌다.

세계 최고의 교육열 등 지나치게 과열된 우리 사회의 경쟁구조와 아무리 노력해도 점점 심해지는 취업난, 소득불평등 구조, 열악한 노동환경은 청년 세대의 열정과 꿈을 잃게 하고 절망하게 한다. 대학생활 내내 취업준비에 매달려도 취업의 문이 좁기만한 현실. 인턴기간을 거쳐 수습사원으로, 그리고 비정규직으로 가기까지의 기간은 멀기도 하지만 젊은이들의 희생이 요구되는 기간이기도 하다. 그러나 취업에 성공했다고 해도 백소영 교수의 말처럼 "청년세대는 경제적·사회적 불안정성과 사회적 안전망에서 벗어난 계층으로 청년들은 어른세대에 비해서 자산이나 성취감 면에서 출발부터 구조적 좌절감을 맛보아야 하는 세대라는 것"이다.

삼포세대에서 열정페이, 달관세대까지

그러는 가운데 수년 전부터 기성세대가 이해하지 못하는 여러 신조어가 등장했다. '이태백', '삼포세대'(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세대), '사포세대'(삼포에 인간관계를 포기한 세대), '오포세대'(사포에 내집마련을 포기한 세대)라는 용어가 등장했고 젊은이의 열정을 싼 값으로 산다는 '열정페이', 심지어는 일부 기독교에서는 '헌신페이'라는 말이 등장했고, 최저임금도 지키지 않으며 고의적으로 부도를 내며 젊은이들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주지 않는 '후러치기' 라는 말도 등장했다.

또 우리사회에 '달관(達觀)세대'라는 용어도 등장했다. 이는 일본에서 4~5년 전부터 쓰이고 있는 '사토리(さとり)·득도, 깨달음' 세대를 적용한 것인데, '달관세대'는 소득이 높고, 남들보다 앞서가는 삶, 중산층 이상으로 살아가는 것이나 대기업에 취업하고 정규직이 되는 것 등을 성공으로 보는 기성세대의 가치를 버리고 100만원 안팎의 수입으로도 알뜰하게 소비하며 행복하게 사는 법을 스스로 터득한 청년세대라는 것이다. 그러나 '달관'은 취업난과 낮은 임금과 무임금의 고통을 겪는 청년 세대에게 무리한 요구로 들린다.


이러한 논리들은 생존권이 확보되지 않은 청년층에게는 엄청난 사치가 아닐까? 그리고 사회구조가 낳은 청년층의 경제위기의 해법을 '개인'에게 돌리는 것이 아닌가? 또 기성세대의 책임감을 덜어내는 그럴듯한 자족논리에 불과한 것은 아닌가?

YWCA의 청년운동을 다시 생각하며

현재 YWCA운동에 청년이 없다는 사실은 큰 과제가 아닐 수 없다. 1970년까지만 해도 직장 여성들을 중심으로 비교적 청년클럽활동들이 잘 유지되었다. 그러나 지금은 YWCA이사회나 다양한 논의과정이나 프로그램 참여에도 청년의 자리는 비어있다. Y-턴과 대학 YWCA의 운동성도 미약한 수준이다.

올해로 창립 50주년을 맞이한 청주YWCA는 4년 전부터 50주년 기념사업선정을 위한 워크숍과 논의과정을 거쳐 노인운동과 청년운동으로 압축하였고 2014년 연석회의를 거쳐 '청년운동'을 선정하게 되었다. TF팀을 조직하고 2014년 10월부터 매주 월요일 총 14차례에 걸쳐 TF팀회의를 가졌고 그리고 지금도 매주 계속 회의를 가지며 청주청년YWCA(일하고 참여하는 청년의 집)설립을 결정하였다. 그 과정을 통해 청년YWCA의 목적과 목표, 규약을 만들었고 인적지원, 공간지원, 재정지원(초기설립자금 3500만원 확보)이 계획되었고 매주 수요일 TF팀 주관 이사 및 실무자들이 기도회를 가지고 있다.

젊은 청년들을 오랫동안 접하고 있는 나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애타는 마음을 다 이해하기는 어렵다. 내가 만나는 학생들은 학과 특성상 정규직 취업이 보장되어 있는 학생들이다. 그럼에도 간혹 그들과의 대화 속에서 젊은 세대의 아픔과 어른세대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나마 이들이 이 아픔을 감수할 수 있는 이유는 이들에게는 취업이라는 희망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취업의 문턱에서 발길을 돌려야 하는 수많은 청년들에게는 할 말이 없다.

청년들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사회, 희망을 주는 사회가 필요하다. 그리고 청년들에게도 과제를 주고 싶다. 그럼에도 자신을 존중하는 것, 자신의 가치와 삶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 그리고 긍정적인 사고와 꿈과 희망과 열정과 도전정신을 놓지 않도록 격려하고 싶다. 이런 과제들을 고민하고 있는 청년들과 함께 소통하고 호흡하는 YWCA가 되길 기대해본다. 어려움의 시기를 자기성숙의 시기로 만들어가도록 청년들을 격려하며 이들과 함께 걸어보자. 

대학·청년Y가 우리 시대 평화를 말하다

2015년 2월 27일(금) 연합회 회의실에 전국에서 온 대학·청년Y 대표 청년들이 모였다. 2015년의 새로운 청년운동을 기획하면서 '평화'를 화두로 나눈 이들의 이야기에는 Y 청년들의 고민과 열정, 소망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 (정리: 연합회 이지은 간사)

참석자 명단(가나다순)

김은경(연합회 실행위원, 대학·청년위원회 위원장), 신보미(연합회 실행위원, 청주Y), 김광식(청주Y), 문윤희(안양Y), 박하늘(전주Y), 손지수(대구Y), 유태식(여수Y), 윤소라(인천Y), 이지은(연합회 실무자)

대학·청년Y의 평화운동에는 스토리가 있다

박하늘: '평화'가 무엇일까요? 사전을 찾아보니 '분쟁이 없는 상태'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요즘 청년들을 옥죄는 스펙과 취업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상태,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이 평화가 아닐까 생각해봤어요. 사실 우리들에게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배우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한데, 무언가를 해보고 싶을 때 필요한 돈이 없으니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고, 아르바이트를 하다 보면 시간이 없고, 그러다 보니 점점 Y 활동에서 멀어지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저는 Y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많이 얻었던 것 같아요. 도스뜨로 해외봉사활동도 다녀오고, 사회를 보는 견문도 넓어지고, 그래서 저는 스펙이나 취업의 문제로 Y 활동을 점점 멀리하는 친구들에게 이것 역시 스펙이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요. Y가 누구에게나 열려져 있는 스펙을 만드는 기회 의장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대학생들의 로망인 여행을 Y가 하는 거예요. 물론 가보고 싶은 곳을 그냥 가보는 여행이 아니라 Y의 6대 과제를 중심으로 테마 여행을 하는 식으로 주제와 장소를 선정해서 여행도 하면서 견문도 넓히는 거죠.

윤소라: 그런데 스펙을 쌓는 것을 목적으로 할 경우 자기 필요에 따라 Y 활동을 이용하고, 우리 운동에 연계되지 않는다면 어떡하죠? 예를 들면, 저는 주변에서 자기 스펙에 필요한 봉사활동만 하고 그 외의 활동에는 관심 없는 친구들을

자주 보면서 참 안타까웠어요. Y가 추구하는 가치가 그들에게 남지 않는다면 의미 있는 활동이라고 볼 수 없잖아요?

박하늘: Y의 어떤 활동들은 스펙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니 그들이 Y와 멀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Y에서도 충분히 기회를 얻을 수 있고, 배울 수 있다고 설득하고 싶어요. 자신만의 스펙을 찾는 기회가 여기에도 충분히 있다고요. 다시 말하면 스펙에 대한 패러다임 자체를 바꿔버리는 거죠.

김광식: 제가 경험한 Y는 스펙보다 스토리를 만들어주는 곳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세상에 대한 생각을 바꿔 주잖아요. 최근에 청주Y에서 '청년이 왜 위기인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그 때 했던 얘기가 이거였어요. "청년은 쓰다가 버려진다. 아니 쓰여 지지 못하고 버려진다. 열심히 노력하지만 원하는 곳

에 취업하지 못하고 버려지게 된다." 결국 이런 사회 구조를 벗어나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은 거죠.

제가 다니는 사범대학에서는 임용시험 외에 다른 길에 대해 이야기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다른 길이 있다는 것 자체를 이야기하지 않는 문화 속에서 혼자 다른 길을 가는 건 쉽지 않죠. 요즘 보면 자기가 원하는 것이나 잘하는 것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도전하고 싶어 하는 청년들도 있기 때문에 Y의 활동들이 청년들에게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어요.

김은경: 한 가지 얘기한다면 청년들이 스스로 새로운 것을 찾아내고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요즘 소셜 이노베이션이 화두가 되는 것처럼 틀을 깨는 역할을 청년들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이디어를 가진 20대와 재력과 의지를 가진 60대가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협업을 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아요.

생활에 지쳐가도 함께 평화를 이야기하자

손지수: 저는 얼마 전 설교에서 "평화란 사람을 찾아 함께 밥을 먹는 것이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참 많이 공감되었어요. 내가 배가 부르고, 또 행복해야 비로소 다른 사람을 볼 수 있잖아요.

제가 Y에서 활동하는 이유는 청년들이 직접 주체가 되어 활동하는 것이 좋기 때문인데, 저는 제가 입학하는 대학에서 대학Y를 만들어 여러 사람들과 함께 해보고 싶어요. Y 활동이 모든 사람이 함께 참여할 수 있고, 또 서로의 다양한 활동을 배우고 교류하면 좋겠어요.

문윤희: 저는 Y에 와서 활동하면서 Y를 좀 더 일찍 알았으면 좋았을텐데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다른 친구들도 Y를 자주 접하도록 더 알리고 소개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신보미: 예를 들어 락페스티벌 같은 축제를 열어 Y의 다

양한 활동을 보고 듣고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처럼 Y 안에 있는 청년들은 평화에 대해 생각하고 고민할 기회가 있지만 일반 친구들은 그럴 기회조차 없는 것 같아요.

교회를 다니고 신앙이 있는 친구들 중에서도 예배 후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모르는 청년들도 많이 만나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축제의 자리를 통해 Y 외부에 있는 청년들에게 평화에 대한 화두를 던져보는 거예요. 당장 우리와 함께 하지는 않더라도 언젠가는 함께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그들과 만나고 부딪혀보는 기회를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박하늘: 요즘은 학업 외의 활동에 대해서는 불편한 시선을 보내거나 제지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게 얼마나 유익하고 필요한 일인지 구체적인 경험담을 통해 홍보하는 일이 필



평화를 이야기하는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할 수 있는 일



글 | 윤소라 (인천Y 대학·청년Y 회장)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경외하라”,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심을 다해 이루어 나간다면 이 땅의 많은 문제점들이 해결되고, 진정한 평화가 생길 것이다.

2월 9일(월), 2015년 YWCA의 청년평화포럼을 기획하기 위한 TF팀 대학·청년들이 모였다. 우리는 평화에 대한 생각과 Y에 대한 우리들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나누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평화, 또 요즘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평화는 어려운 것들이 아니다. 평화는 ‘분쟁 없이 평안한 상태’, ‘마음의 고민이 없는 상태’, ‘더불어 가는 사회’, ‘사람을 찾아 함께 밥을 먹는 것’,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고 소통하면서 그 안에 많은 것들을 배우는 것’, ‘신앙이 바로 서면 무엇을 하든 평안한 상태가 온다’ 등 여러 이야기들이 나왔다. 모두가 맞는 말이다. “당신은 지금 평안한가요? 당신은 정말로 행복하나요?”라고 누군가가 묻는다면 자신 있게 ‘YES’라고 대답하는 친구들이 몇 명이나 될까.

현실과 이상의 갈등 속에서 평화 찾기

대학생들의 버킷리스트 중 하나가 여행이라고 한다. 휴학을 하거나 무슨 일을 시작하거나 끝나고 여행을 다녀오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한다. 이와 관련해 여행에 관한 수많은 서적들도 쏟아져 나오고 있다. 여행을 하면서 많은 고민과 생각들을 정리하고 싶어하고 평온을 누리고 싶어한다. 지금의 고민을 잠시 접어두고 새로운 곳으로 가고 싶어한다. 다시 말해 여행에 대한 갈망은 우리 시대 청년들의 평화를 향한 갈망이기도 하다.

대학생들은 그들 안에서 내적인 교류가 없이 강의나 토론회 참석조차 학점과 스펙을 위한 경로로 생각해, 커리어가 될 만한 지식과 경험을 쌓는 것이나 사랑이 밀바탕되어야 할 봉사활동조차도 하나의 스펙으로 분류해 버린다.

요한 것 같아요.

저는 요즘 저희 대학에 Y 동아리를 만들려고 대자보 만드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학교에서 시작해서 다음에는 옆 학교, 또 그 다음에는 그 옆 학교, 이런 식으로 우리를 알리고 소개하고 싶어요.

윤소라: 저도 요즘 대학에 붙일 대자보 만드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하면서 느끼는 건, 섬기는 사람들이 중심을 잘 잡아야한다는 거예요. Y 활동이 기독교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는 것과 처음 시작했을 때의 마음을 잘 유지하는 것이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열심히 하겠다는 다짐을 하고 시작하지만 자기 생활에 지쳐서 그만두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생기니까요.

생활에 지친다는 건, 집안 사정이 생기기도 하고, 아르바이트나 학업 문제로 바빠지면서 우선순위가 달라지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에도

많은 기간 중에는 성실하게 일할 수 있는 주인의식이 필요한 것 같아요.

김은경: 생활에 지친다는 표현이 인상적이네요. 기성세대가 바쁜 업무, 가사, 육아 등으로 인해 나를 돌아보기 전에 돌봐야 할 많은 것들 때문에 생활에 지친다는 얘기를 하곤 하는데, 청년들에게서 같은 이야기를 들으니 나이를 떠나 공통의 문제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유태식: 저도 작년에 비슷한 어려움을 겪었어요. 처음에 함께 시작했던 임원 4명 중에 2명이 중간에 이력서로 빠져나가면서 회장으로서 힘들었거든요. 그래도 힘을 낼 수 있었던 것은 함께 하는 간사님 덕분이었던 것 같아요. 마음을 나눌 수 있는 함께 하는 사람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진정한 평화는 사람으로부터 온다

문윤화: 저는 평화를 신앙의 관점에서 생각해봤는데, 신앙이 바로 서면 평화를 누리는 것 같아요. 저는 Y를 통해 신앙을 보다 깊이 얻을 수 있다는 점이 좋아요. 또 비빌 언덕 같은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도 좋고, 이 활동을 통해 스펙을 넘어서 스토리를 갖게 된다는 것도 좋고요. 그래서 앞으로 진행될 청년운동을 통해서 Y의 운동을 충분히 이해하고,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면 좋겠어요.

신보미: 제가 Y를 좋아하고, 평생 함께 할 곳이라는 생각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저는 진정한 평화는 관계에서 온다고 생각하고 관계의 평화를 가장 잘 실천하고 지지하는 곳이 Y라고 생각해요. 영성을 배우고, 될 수 있고, 살아가는 가치를 잡아주는 곳, 그래서 Y와 함께 하고 싶어요.

대학·청년Y가 평화를 고민하며 2015년에 함께 하고 싶은 일

1. 청년의 삶과 평화에 관한 세대간 소통의 장 만들기
- 작은 간담회
2. YWCA 청년 평화 트레킹
- 6대 과제 테마 여행 or DMZ 평화기행
3. YWCA 청년문화축제
- 영화제 or 활동 소개(체험) 박람회

유태식: 그래서 저는 사람을 통해 배우는 것이 진짜 평화가 아닐까 생각해요. 스펙을 갖추고, 취업을 잘하고, 돈을 많이 버는 것도 대학생들이 원하는 평화 중에 하나이지만, 그건 더 큰 욕심으로 귀결되어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서 진정한 평화는 아닌 것 같거든요. 오히려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것, 그래서 상대의 좋은 점을 배우고, 나쁜 점을 통해서도 또 배우고 하는 인간관계가 가장 가치 있는 것 같아요.

잊지말자 후쿠시마 멈춰라 월성1호기!

글 | **한영수** (연합회 부회장, 생명평화위원회 위원장)

동일본 대지진 참사(2011년)로 인한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사고가 일어난 지 4년이 되었다. 이 사고는 1986년 구소련의 체르노빌 핵발전소 폭발사고가 나고 25년이 지난 세월이 흐르면서 사고에 대한 두려움이 서서히 잊혀져갈 때 일어난 초대형 참사였다. 두 사고로 핵발전소 폭발사고가 일어날 확률이 1/1,000,000이라는 핵발전 산업계의 주장은 아주 무색해졌다. 더구나 후쿠시마 핵사고는 핵발전 사고의 최고 단계인 7단계 사고로 수소폭발과 노심용융이 4기 중 3기의 원자로에서 일어나 어떻게 손을 쓸 수조차 없는 대참사가 되고 말았다. 또한 같은 지역에 여러 기의 원자로를 함께 세우는 것이 더 큰 화를 불러오게 하였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핵발전이 결코 인간에 의해 통제될 수 없다는 것이 명확해졌고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방사능 위험에 노출된다는 것을 확인시켰다.

핵사고가 일어나고 4년이 지난 후쿠시마 지역은 방사능의 피해로 인한 고통이 더욱 극심하게 진행되고 있다. 갑상선암과 심장질환 환자, 혈액으로 인한 질병의 발병 비율이 급속하게 늘고 있다. 특히 어린이의 발병률이 월등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재난을 피해 피난을 갔던 주민들은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남은 생을 객지에서 마쳐야할 처지에 놓여있다. 일본 국민의 77%가 핵사고로 인한 건강문제를 걱정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고농도의 방사능 오염수가 하루에 300톤씩 여전히 바다로 방출되어 전 세계 바다를 서서히 오염시키고 있다. 사용 후 핵연료에 계속 물을 부어서 식혀야 하기 때문에 냉각수 저장탱크가 포화상태로 남아있는 한, 오염수의 방출은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태이다. 점차적으로 전세계 바다 먹거리의 방사능 오염이 확실시 되는 상황이다.


후쿠시마 원전 1호기는 노후 원전으로 40년 수명이 끝나 폐쇄 예정이었으나 10년 연장 허가권을 따낸 직후에 동일본대지진이 발생하여 제일 먼저 폭발하면서 노심용융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전문가들은 수명연장이 사고를 불렀다고 보고 있다.

세대 간에 따뜻하게 소통하기

영화 '국제시장'은 1400만 관객 수를 넘었다. 70년대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께서 생활고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오셨고, 경제발전을 위해 한 사람 한 사람의 땀과 눈물들이 모여 지금은 OECD 20위 안에 드는 놀라운 경제 발전을 이루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세대가 이전 세대들이 이룩해 놓은 많은 문화적인 혜택과 풍요를 누리고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하지만 OECD 국가 중 국민행복지수, 복지충족지수는 하위권에 머문다. 풍요로운 경제를 누리고 있지만, 낮은 시민의식 수준, 그 속의 정신적 공허함, 감사를 잊은 상대적인 박탈감, 마음의 병들어감, 성적 타락을 보면 너무나도 패역한 우리 세대이다. 육은 날로 부유하나, 영과 혼은 병들어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 지금 이 시대 대학·청년들에게 '너희가 지금 얼마나 풍요로운 삶과 문화혜택을 누리고 있는데? 우리때는..'라고 묻는다면 할 말이 없다.

청년들은 아직 행동하지 못하고 있지만, 모두 고민하고 있다. 우리를 조금 더 따뜻한 시선으로, 현 세대의 청년들이 안고 있는 고민과 문제들을 진정으로 나누고 격려와 지지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세대 간의 소통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품어주고, 아껴준다면 우리 안에 여유와 평안도 생길 것이다.

어떠한 일과 사건이 생겼을 때 남의 일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 가족으로 내 일처럼 여긴다면 조금씩 평화에 가까워 질 것이다. 이 땅에 YWCA를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의 책임과 사명을 다시 한 번 생각한다. 

우리 모두는 문제점을 알면서도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가 없다. 시험을 준비하고 취업이라는 문턱을 넘어야 하고, 문제라고 외치는 사이 다른 사람에게 뒤쳐질 것 같은 불안감이 생긴다.

학자금 문제로 인한 아르바이트를 하며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만, 나는 정말로 잘 살고 있는가 싶다. 우리는 취업 준비와 불확실한 미래로 3포 세대 혹은 5포 세대라 불린다.

또한 대학생들은 나 자신의 고민만으로도 벅차서 세상을 돌아볼 여유가 없다고 말한다. 세계 곳곳에서는 경제적 이익을 위한 끊임없는 전쟁, 어린 아이들을 향한 노동력 착취, 여성들을 유린하는 성 노예, 곳곳에서 일어나는 인권문제 등이 일어난다. 일본에서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일어난 이후, 유럽 국가들은 탈핵시대를 선포하고 가동을 중지시키고 있지만, 아시아권 특히 우리나라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로 최대 핵보유 발전국가가 되겠다는 기이한 현상을 보이고 있다. 문제점들이 귀로는 들리나 '지금쯤 어쩔 수 없지'라는 말로 회피하고 책임을 지려는 사람은 없다. 사회 구조에 대해 비판하며 현 세대를 향한 문제들을 지적하지만, 실천하고 행동하는 사람은 적다.

우리가 평화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 이유는 Y 안에서 우리가 먼저 주인의식, 책임의식을 가지고 하나씩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시작해보기 위해서이다.

Y 안에서 우리가 먼저 받은 기회와 사랑, 좋은 사람들과의 만남과 소통, 세상을 좀 더 현명하고 자신감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은 사람들과 나누었으면 좋겠다.

세계의 원전 정책과 반대방향으로 가는 한국의 정책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독일, 스위스, 벨기에, 대만 등 많은 나라들이 핵발전에서 벗어나는 안전한 사회를 추구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핵발전 사고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하면서도 놀란 것은 잠시 뿐 더 강력한 핵발전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채택하려 하고 있다.

월성1호기의 연장이 지난 2월 27일 가결되어 버렸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14시간 동안 마라톤 회의에도 불구하고 안전성 검증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런데도 날짜를 넘겨 새벽1시 무렵, 문제투성이의 누더기 검증 상태로는 표결할 수 없다는 2명의 위원이 표결을 거부하고 퇴장한 직후에 나머지 7명 위원들이 전원 찬성으로 월성1호기의 연장을 가결시켜 버렸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노후원전 설계수명 만료일로부터 10년 후까지 수명연장이 가능한지를 관련 안전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결정해야 한다. 주기적 안전성 평가, 수명평가, 계속운전에 따라 발생하는 방사선이 주변 환경에 미칠 영향에 대한 평가 등 총 134개 항목을 심사하여 모두 만족시켜야 한다.

그러나 현재 월성1호기 재가동의 안전성과 경제성을 둘러싸고 핵공학 전문가들 간에 상반된 논리를 펴면서 서로 완전히 다른 주장을 하는 것은 수명연장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것이다. 원자로 격납용기도 최신 안전기준인 'R-7' 적용문제에서 월성2·3·4호기에 적용된 'R-7'이 월성1호기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그리고 스트레스 테스트도 KINS검증단과 민간검증단간에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이런 상황에서 시간적으로 충분한 자료 검토도 되지 않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들의 결정은 사회적 신뢰를 얻을 수 없다.


월성1호기 연장 가결이 인정될 수 없는 점을 정리하면,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은 원자력안전법 위반, 최신안전기술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은 안전성 검

증미비, 사업자로서 역할을 한 자격미달 위원의 심사참여, 한밤중에 날치기로 진행된 표결 강행, 이미 경제성도 없고 전력수급에 미치는 영향도 미미함'을 들 수 있다.

노후핵발전소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 가결과정은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였다. 캐나다 제틀리2호는 월성1호기와 같은 시기에 운전을 시작했고 수명연장도 문제가 되었다. 제틀리2호가 재가동하기 위해서는 후쿠시마 사고 이전이라면 1조원의 비용이 들 예정이었으나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결정된 최신 안전조건을 위해 4조원의 비용이 필요해서 캐나다는 연장을 하지 않고 폐쇄 결정을 내렸다.

고리1호기와 월성1호기가 폐쇄되는 그날까지

그러나 한국 정부는 고리1호기도 10년 재연장하려는 계획을 하고 있고, 국민들은 폐쇄를 주장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국YWCA는 전국 52개 회원YWCA와 함께 지난 2월 3일 그동안 불의날 캠페인 행사를 통해 받은 한국YWCA 10만 회원의 탈핵 서명을 부산시장에게 전달하면서 고리1호기의 폐쇄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다.

한국YWCA는 탈핵운동을 2013년 이후 전국 52개 회원YWCA가 함께하는 중점운동으로 정하고 후쿠시마 3주기인 2014년 3월 11일부터 매주 화요일 명동과 52개 지역에서 한국YWCA 불의날 캠페인으로 대시민 탈핵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2015년에는 전국 23개 핵발전소로 핵밀집도 세계 1위를 기록하는 대한민국에서 30년 수명을 다한 고리1호기와 월성1호기를 폐쇄하고, 지역의 에너지 자립과 전환을 생각하는 에너지자립 워크숍과 방사능으로부터 우리아이들을 지켜내는 방사능조례제정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이다. 탈핵의 길은 멀지만 꾸준히 가야하며 가능한 길이라는 것을 알리는 동시에 재생에너지 사회로의 전환을 촉구하고 있다. 

청소년 탈핵운동과 삼척시 신규 원전 반대

글 | 전민지 (동해YWCA 중점운동부 간사)

동해 Y-틴은 2014년 중점운동인 탈핵을 주제로 '나·너·우리에너지 탈핵학교'를 진행하였다. 탈핵학교는 청소년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토요일탈핵교실과 시민 탈핵교실로 총 8회 운영되었다. 이 교육을 통해 핵발전소의 위험성과 후쿠시마 이후 한국의 핵발전소 상황을 알리고 하나님의 천지창조질서 보전을 위한 탈핵운동의 당위성을 인식시키고자 하였다.

특별히 청소년 토요일탈핵교실을 통해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앞으로 핵 없는 안전한 세상을 위해 에너지 절약을 통한 원전 하나 줄이기 운동에 동참할 것을 교육하였다. 처음엔 탈핵이라는 말을 생소하게 느꼈던 학생들도 다양한 활동과 교육을 통해 탈핵이라는 것이 당장 원전을 없애버리자는 거창한 것이 아닌, 우리들도 에너지 절약을 통해 탈핵운동에 동참할 수 있음을 이해하고, 교육 후에는 자발적인 탈핵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년들에게 앞으로 핵 없는 안전한 세상을 위해 에너지 절약을 통한 원전 하나 줄이기 운동에 동참할 것을 교육하였다. 처음엔 탈핵이라는 말을 생소하게 느꼈던 학생들도 다양한 활동과 교육을 통해 탈핵이라는 것이 당장 원전을 없애버리자는 거창한 것이 아닌, 우리들도 에너지 절약을 통해 탈핵운동에 동참할 수 있음을 이해하고, 교육 후에는 자발적인 탈핵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위) 탈핵교육을 마치고 함께 탈핵을 다짐하는 청소년들
(아래) 교육 이후 자발적으로 참여한 거리 탈핵캠페인

직접 재활용품들을 가지고 피켓과 현수막 등 다양한 탈핵 홍보물품을 제작하여 천곡동굴, 대학로 등 시민들의 왕래가 많은 곳에서 탈핵 퍼포먼스인 '플래시몹'을 진행하며 핵과 핵발전소가 가지고 있는 위험성과 부정의, 분쟁의 문제들을 알리고, 핵 의존적이며 공급 중심인 에너지 정책을 재생에너지와 수요 관리 중심의 에너지 정책으로 전환하여 생활 속 에너지 절약과 에너지 자립 노력을 확산시키고자 하였다. 또한 노후 원전 폐쇄를 위한 서명운동을 실시하여 전국 YWCA와 함께 정부를 향한 탈핵의 의지를 보여주었다.

6월 14일에는 신경준 교사(서울 송문중학교 환경교사)과 함께 서울로 탈핵견학을 다녀왔다. 하늘공원, 서울에너지드림센터, 원전하나줄이기 정보센터, 에코하우스를 방문하여 에너지와 에너지절약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며, 성대골 에너지자립마을에 방문하여 김소영 관장(성대골어린이도서관)의 안내로 마을 곳곳을 다니면서 에너지 자립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에너지 자립마을을 위해 실생활에서 어떤 실천을 하는지 직접 보며 에너지 절약에 대해 많은 것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동해시 시민단체들과 함께

삼척 신규 핵발전소 유치반대 요구

지난해 10월 원전 후보지로 떠오른 삼척에서는 원전 유치를 두고 실시한 주민투표에서 시민 84.9%가 반대표를 던져 '탈핵'의 구심점으로 떠올랐다. 동해YWCA는 청소년 탈핵운동뿐 아니라 인근 지역인 삼척에 신규 핵발전소 반대운동에도 적극 참여했다. 신규 원전 반대 선거일 전날인 지난 10월 8일 삼척시를 방문하여 주민투표참여를 독려하는 캠페인을 진행하였으며, 동해삼척 시민이 함께 신규 원전 유치반대 요구를 한 목소리로 모아 시민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한 노력에 동참하였다. 동해YWCA 회원들은 동해시의회 김혜숙 의장 등 7명



(위) 서울에너지드림센터를 방문한 탈핵학교 참가자들
(아래) 삼척시에서 진행한 신규 원전 반대 투표를 독려하는 캠페인

의 시의원과 함께 삼척우체국 앞과 상가를 순회하며 원전 반대와 주민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캠페인을 벌였다. 삼척 신규원전 유치반대 투표는 주민투표명부 등록자 4만2488명 중 2만8868명이 참가해 투표율 67.9%라는 높은 투표율을 보였다. 결과적으로 주민의 80% 이상이 원전 반대에 마음을 모았지만 2015년 3월 현재 까지도 산업부는 삼척원전 신규건설 백지화 계획에 있어 주민투표의 결과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동해YWCA의 2014년 활동에 이어 올해 2015년도 중점운동인 탈핵을 주제로 핵발전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지속가능한 미래사회를 위한 에너지 자립 및 대응방안을 모색하며, 교육을 통해 에너지 절약 및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방안에 대해 알아보고 신재생에너지의 중요성과 에너지 전환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확대시키는 다양한 활동을 하고자 한다.

전국 52개 회원YWCA가 지역에서 함께 한 탈핵 캠페인



탈핵을 향한 YWCA의 간절한 소망! 매주 화요일 명동을 지나는 시민들과 함께 합니다

제1차 3월 11일



연희회

제4차 4월 1일



고양Y, 서울Y, 순천Y

제8차 4월 29일



수원Y

제9차 5월 13일



서울Y

제11차 5월 27일



순천Y

제13차 6월 10일



부천Y

제14차 6월 17일



경기지역

제24차 8월 26일



제주Y, 캠페이너 1명

제23차 8월 19일



하남Y, 성남Y, 남양주Y, 캠페이너 2명

제22차 8월 12일



청소년 탈핵 캠페이너 16명

제20차 7월 29일



동명Y, 시민자원봉사자 3명

제19차 7월 22일



논산Y

제18차 7월 15일



인천 대학Y, 안동Y, YWBS 8기

제17차 7월 8일



수목회, 날자옴밴드

제27차 9월 23일



의정부Y

제30차 10월 14일 작은 음악회



창원Y, 김해Y, 진해Y

제31차 10월 21일



양산Y

제32차 10월 28일



진주Y

제35차 11월 18일



대전Y

제36차 11월 25일



하남Y, 탈핵운동가 2명

제49차 2월 24일



캠페이너 3명, 키다리 14명

2월 5일 고리1호기 앞 십자가 행진



제45차 1월 27일



캠페이너 21명, Y-틴 3명

제39차 12월 16일



원주Y

제38차 12월 9일



세종Y, 제천Y, 천안Y

제37차 12월 2일



춘천Y

고리1호기 폐쇄를 향한 YWCA 10만 회원의 마음을 모았습니다
원전 대신 안전! 2015년에도 전국 52개 회원YWCA와 탈핵운동을 이어 나갑니다



2015년 2월 3일
고리1호기 폐쇄 촉구
YWCA 10만 회원 서명 전달

지난 3월 11일 후쿠시마 사고 3주기를 기점으로 시작한 YWCA 탈핵 불(火)의날 캠페인은 지난 1년간 매주 화요일마다 서울 명동을 비롯해 전국 각 지역에서 서명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왔다. 핵발전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시민들에게 핵의 위험성을 알리고, 핵발전소 사고가 체르노빌과 후쿠시마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과 안전이 직접 연결된 일임을 호소했다. 이렇게 모은 9만 명의 서명을 부산시장에게 전달하며 고리1호기 폐쇄를 위해 함께 나아갈 것을 다짐했다.

2015년 3월 10일
제51차 탈핵 불의날 캠페인

이 날 연합회와 7개 회원Y(남양주Y, 부천Y, 성남Y, 안산Y, 인천Y, 수원Y, 하남Y), 연대단체 회원 140여 명은 명동 한국YWCA회관 앞에서 출발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소재한 광화문까지 도보로 거리행진을 했다. 이는 지난 2월 27일 새벽 월성1호기 재가동 결정에 대한 무효화 입장을 표명하고, 무엇보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우선임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함이었다.



2015년 한국YWCA는 전국 23개 핵발전소로 핵밀집도 세계 1위를 기록하는 대한민국에서 30년 수명을 다한 고리1호기 폐쇄와 월성1호기를 폐쇄하고, 탈핵의 길은 멀지만 꾸준히 가야하며 가능한 길이라는 것을 알리는 동시에 재생에너지 사회로의 전환을 촉구해나갈 것입니다.

- 평화 3.1정신과 YWCA운동의 과제 | 유성희
- 여성 온라인 공간의 여성 혐오 정서 구조 | 김수아
- 청년 2014년 키다리학교 활동나눔과
2015년 운영진 워크숍 | 이지은

3.1정신과 YWCA운동의 과제

글 | 유성희 (연합회 사무총장)

3.1운동이 일어난 지 올해로 96년이 되었다. 4년이 지나면 3.1운동은 100주년을 맞는다. 3.1운동은 헌법 전문에 밝힌 바와 같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형성한 첫 근대 민족운동이고, 지역, 계급, 성별, 종교를 초월하여 독립과 자치, 정의와 평화의 세상을 함께 천명한 시민사회운동이다.

한국 근현대사에 큰 영향을 미친 3.1운동은 종교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고, 특히 기독교의 역할이 컸다. 당시 개신교인은 인구의 1.5%인 24만명인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3.1운동으로 구속된 핵심 참여자들의 20% 이상이 기독교인이었고, 특히 여성 투옥자는 대부분이 교인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처럼 기독교는 3.1운동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을 뿐 아니라, 민족주의와 기독교 계열로 나뉘어있던 당시 한국의 여성운동이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합쳐지는 계기를 제공해주기도 하였다.

한국YWCA 창설자인 김필레가 세계YWCA본부에 보낸 메시지를 보면,

“1919년 3·1운동의 영향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지 아니한 한국 여성들은 최선을 다하여 조국을 위하여 봉사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래서 무수한 조직과 단체들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훈련과 경험이 없었던 까닭에 이들 노력은 다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되기 위한 이 일치를 그리스도 위에 세울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다가, 결국 YWCA야말로 우리 요구에 맞는 최선의 기관이라 결론짓게 되었습니다.”

그의 글에서 YWCA가 3.1운동으로부터 직접적인 창립의 동인과 동력을 제공 받았음이 드러난다.

한국YWCA는 「젊은 여성들이 하나님을 창조와 역사의 주로 믿으며 인류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임을 인정하고 예수그리스도의 가르치심을 자기 삶에 실천함으로써 정의, 평화, 창조질서의 보전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건설함」을 목적으로 한다. 3.1운동의 정신을 살펴보면 YWCA의 목적이 원칙과 지향에서 3.1운동과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첫째, 3.1운동의 특징 중에 하나는 33인이 서로 종교가 다르면서 민족을 위해 자기 신앙을 내세우지 않고 서로 손을 잡았다는 사실이다. 33인의 종교적 구성을 보면 기독교가 16인으로 제일 많고, 다음이 천도교 15명, 그리고 불교가 2명으로 되어 있다. 종교의 다름을 초월하면서 함께 손을 잡았다는 것은 3.1운동에 나타난 시민운동 정신이며, ‘인류가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라 선언한 Y정신과도 일치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둘째로, 1년간에 걸친 항일시위 투쟁에서 각 교파 할 것 없이 많은 종교인이 구속되었는데, 이것을 종교, 교파별로 보면 천주교 55인, 유교 346인, 기독교 3,373인, 불교 220인, 천도교 2,282인으로 기록되어 있다. 3.1운동 당시 종교인들은 입으로 고백만 하는 신앙인이 아니었다. 이들은 자신들의 신앙을 몸으로 실천하는 신앙인들이었다.

셋째로, 3.1운동 당시 기독교인들의 신앙은 독립을 구원으로 받아들이는 역사적인 신앙이었다. 당시 선교자들은 구원을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이라 해석했으나, 이들은 일본의 정치적 억압과 경제적 착취 및 민족적 차별대우로부터의 해방을 구원으로 이해했다. 즉, 3.1운동에 참여한 기독교인들의 독립의지는 종교적 차원에까지 이른 것이며, 독립을 구원으로 보았다.


넷째로, 독립선언문은 정의와 인도의 재현을 핵심에 두고 있다. <아아 새 하늘과 새 땅이 눈 앞에 펼쳐지느냐, 힘의 시대는 가고 도의의 시대가 오느냐, 지나간 세계를 통하여 깎고 다듬어 키워온 인도적 정신이, 바야흐로 새 문명의 서광을 인류의 역사 위에 던지기 시작하느냐.>. 3.1운동 정신은 힘으로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 약자를 돌보는 것이 3.1운동의 정신이다.

김기석은 한민족에 세계 역사를 구축하는 하나의 십자가 운동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3.1운동이었다고 말하고 있다. 함석헌은 3.1운동을 씨알의 반항 운동이라

고 말하면서, 비폭력 운동이 하나님의 명령이며 전체 생명의 깊은 도가니 속에서 터져 나오는 하나의 운동, 즉 그것은 비폭력 운동이 된다고 말한다. <우리가 본디 타고난 자유권을 지켜 풍성한 삶의 즐거움을 마음껏 누릴 것이며, 양심이 우리와 함께 있고, 진리가 우리와 더불어 전진하나니, 남자, 여자,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음침한 옛집에서 힘차게 뛰쳐나와 삼라만상과 더불어 즐거운 부활을 이룩하게 되누나>. 3.1운동은 생명과 평화를 지키기 위한 운동이었고, 비폭력 평화운동이었다.

한국 근현대사를 통해 나타난 한국YWCA의 역사는 매 시기마다 한국사회의 가장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앞장 선 ‘행위자’였다. 한국의 민족운동의 정신, 즉 3.1운동이 가진 정의, 평화, 생명의 정신은 YWCA가 목적으로 하는 하나님나라 건설과 맥을 같이 하고 있으며, YWCA는 한국의 근현대사를 통해 기독교 여성들의 실천운동으로 이 정신을 지켜왔다.

그러나 3.1운동 100주년을 앞둔 현 시점에서 우리는 여전히 미완의 독립, 즉 분단의 70년을 맞았다. 3.1운동은 폭력적 일제 침탈에 비폭력으로 대항한 운동이며 동아시아의 평화를 지향한 운동이었다. <조선의 독립은 조선 사람의 정당한 생존과 번영을 이루게 하는 동시에 일본과 중국으로 하여금 평화를 가져오게 하고 세계 평화와 인류의 행복에도 필요한 일>이라 제시한 독립선언문의 정신은 평화가 위협받는 동아시아의 현 상황에서 ‘독립’이 평화의 선결 조건임을 이미 밝혀준 것이다.

3.1운동의 정신을 이어가는 것은 민족의 온전한 독립을 이루는 것이며, 약자를 지원하는 인도적 실천을 통해 인류의 평화를 지속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3.1운동 100주년을 준비하는 한국YWCA의 평화운동은 온전한 독립이라는 민족 통일의 과제를 이루고, 더 나아가 전 세계의 평화의 세상을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며 실천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다. 

온라인 공간의 여성 혐오 정서 구조

한국에서 온라인상의 여성 혐오 정서 구조는 최근의 것만은 아니다. 사이버 공간이 모두가 평등하고 자유롭게 참여하는 공론장으로 기능하리라는 기대와 달리, 초기 PC 통신 공간에서부터 온라인 성희롱, 여성 참여 배제 문제 등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글 | 김수아 (서울대학교 기초교육원)

2000년을 전후로 여성부가 구성되고 '군가산점제 위헌 소송'으로 군가산점제가 공론화되면서 온라인상의 반여성주의 정서는 날로 격화되었다. 통상 반여성주의적 정서의 기반은 경제 성장은 둔화되고 여성이 사회적으로 가시적이 되어 남성의 위기의식이 심화되는 것에 있다고 보는데, 이러한 사건들은 직접적으로 남성의 위기의식을 자극하였기 때문이다.

여성 혐오 표현이 만들어낸 여성주의에 대한 편견

한국에서 웹이 보편화되기 시작한 초기에는 '꼴페미' 등의 표현으로 여성주의자를 일반 여성들과 분리하고 구분하여 비하하거나 모욕하는 일이 많았고, 이를 통해 한국 사회 내 여성주의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생산되고 강화되는 결과를 낳았다. 또한 2000년대 중반 이후로 '된장녀'를 필두로 여성의 속성을 규정하고 구분하여 비난하는 각종 '녀'에 대한 명명과 사이버 공격이 등장했고, 최근에는 '김치녀'와 같이 한국 여성 일반을 비하하고 혐오하는 표현도 사용되고 있다.

한편 2000년대 후반부터는 반여성주의 세력이 결집되어 나타나기 시작했고 (2008년 남성연대 설립), 일간베스트 사이트(2009년 설립) 문제가 사회적 담론의 장에 전면적으로 등장하면서 여성 혐오 정서의 문제는 점차로 그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페미니스트가 싫어서' 테러 단체에 가입한다는 진술이 가능할 정도로, 여성과 여성주의에 대한 혐오가 일상생활 문화에 가까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온라인 공간을 떠도는 여성 혐오 표현의 수위는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기 어려운, 혹은 심지어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수준에 이르기도 한다. 한국을 비하하면서 동시에 여성 일반에 대한 강한 비난과 혐오가 담긴 '김치녀'는 데이트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여자, 남자의 경제력을 우선시하는 여자, 뚱뚱한 여자, 못생긴 여자, 성형수술을 받은 여자, 정숙하지 않은 여자, 여성의 권리를 주장하는 여자 등을 포괄적으로 포함한다.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하건, 어떤 생활을 하건, 어떤 외모를 지녔건 '김치녀'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여성의 나이를 근거로 나이가 많으면 폐물이라고 하거나, 극단적 성적 대상화를 통해 여성을 성기만으로 치환하여 표현하거나, '삼일한(삼일에 한번 여성은 때려야 한다는 표현의 약자)같은 신조어, 그리고 강간을 범죄가 아닌 남성의 자연스러운 욕구라고 간주하는 등 여성에게 성적, 물리적 폭력을 행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혐오 표현들이 포털 뉴스의 댓글은 물론 각종 게시판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현재 한국 온라인상에서 때로는 유머처럼, 혹은 집단 내 사용되는 은어라고 주장되는 표현들의 문제는 여성의 주체성을 부정하고, 여성의 몸과 성을 도구화하며, 여성의 몸이 언제든지 침해 가능하고 남성의 소유가 될 수 있다는 인식 등을 기저에 깔고 이를 정당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이러한 표현들은 여성을 남성과 동등한 위치에서 대화와 협력을 도모해야 하는 시민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들을 의도적으로 공론장에서 배제하고, 비하하며 도구화하기 때문에 여성에 대한 혐오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여성의 동등한 참여가 가능한 온라인 공간으로

그런데 이러한 표현들이 일간베스트 사이트 이용자와 같은 극단적인 일부에 의해서 행해지는 것으로 이들만 처벌하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온라인 상에서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있는 여성 혐오 정서 구조의 위험성을 축소하는 일이 될 수 있다. 일간베스트 사이트에서 가장 극단적이고 위험한 방식으로 혐오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사이트 이용자를 낙

인찍고 이들을 배제한다고 해서 온라인 상의 여성 혐오 구조가 사라지지는 않는다.

게다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세계는 상호 배제적으로,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여성 혐오 표현이나 소수자에 대한 차별은 대체로 위기를 느낀 주류 집단이 잘못된 귀인을 통해 희생양을 찾아 공격하는 데에서 비롯한다. 최근과 같이 청년 실업률이 높고, 좌절과 허기, 무력감과 박탈감이 대중들 사이에 무겁게 내려앉아 있는 상황에서, 여성이나 이주민과 같은 혐오 대상을 찾고 그들을 통해 심리적 안정을 확보하려고 하는 경향성은 온라인과 같이 상대적으로 책임을 덜 느끼게 되는 공간에서부터 확산되고 그 뿌리가 깊어진다. 표현의 극단성과 일탈성만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시대의 정서 구조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인 것이다.

사회 변화와 더불어 여성들이 더 많은 기회를 갖게 된 것은 사실이지만, 한편으로는 사회 전반에 걸쳐 차별과 양극화가 심각해지는 중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에 대한 편견을 강화하는 표현과 발언들이 자연스러운 것으로 다루어져서는 안 된다. 공개된 공간에서 거침없이 여성 혐오 표현들이 제시된다면 이를 통해 여성의 삶의 가치를 부정하고 차별과 배제의 정서가 확산되고 자연화 되는 것은 물론, 이를 접하고 심리적 고통과 불편함을 느끼는 여성들이 해당 공간에 참여하기를 꺼려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동등한 참여야말로 민주적 의사소통과 공론의 형성의 기초이다.

이를 위해 온라인 공간을 재구성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온라인 공간의 특성 중 하나는 그 공간의 성격이 정해져 있기 보다는 이용자의 실천을 통해 구성되는 것으로 재구성 및 변형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점이다. 현실 세계의 성별간 위계와 그 문제점,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이용자의 윤리 의식 제고와 리터러시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개입 방식을 구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키다리로 자라다

Y-틴 활동을 위해 가장 먼저 찾아보게 되는 것이 Y-틴 지침서 혹은 Y-틴 클럽 운영 매뉴얼이다. 이러한 책에서는 Y-틴의 활동에 대해 자치력과 리더십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Y를 비롯한 많은 단체와 기관에서 청소년을 주체로 세우기 위한 청소년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시에 모든 초점이 맞춰진 우리 사회의 교육 환경, 시간주권이 없는 청소년들의 생활 등으로 인해 구호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주체적인 청소년리더를 양성하려는 키다리학교 활동을 마무리하며 전국 청소년 키다리들과 함께 2014년 활동나눔을 가지고, 2015년 사업을 준비하며 운영진 워크숍을 진행했다.

글 | 이지은 (연합회 간사)

에피소드 하나, 나누는 사랑

2014년 키다리학교 활동나눔은 봉사활동으로 시작했다. 키다리들은 총4팀으로 나뉘어 ① YWCA 탈핵 불의날 캠페인, ② 무료급식소 봉사, ③ 연탄 나눔 봉사, ④ 치매어르신 활동 보조를 수행했다. 봉사활동 내내 바쁘게 몸을 움직여야 하는 고된 일이기도 했고, 누군가는 추운 날씨에 실외에서 활동해야 했지만 새로운 것들을 배우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돕는 보람을 느끼기도 했다.

연탄나눔 봉사를 다녀온 평택Y 키다리들은 평소에도 다양한 봉사활동을 해왔지만 이번이 가장 힘들었다며 살짝 투덜댔다. 그러나 다른 키다리들로부터 앞으로 꼭 해보고 싶은 봉사활동이라며 큰 박수를 받았다.



에피소드 둘, 앞의 즐거움

활동나눔 첫째 날 저녁, 대전Y 키다리들이 직접 준비한 대형 마블판 위에서 키다리 퀴즈를 푸는 '모두의 마블' 키다리버전, "모두의 키다리" 시간.

"키다리학교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는 ○○과 ○○이다."와 같은 질문에 예상정답인 '자치'와 '실천'이라는 명확한 단어 대신에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만들어 가고 주체적으로 사는 거요!!"라는 두루뭉술하지만 키다리학교의 정신을 담은 답변을 내놓기도 했다. 비전·팀·실천리더십 등 키다리학교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와 정신을 게임을 통해 배우는 놀이와 같은 워크숍이었다. 우승 상품으로 대전Y에서 준비한 누룽지를 다같이 나눠 먹으며 저녁 시간을 훈훈하게 마무리했다.



에피소드 셋, 우리가 얻은 것

2014년 한 해의 활동을 마무리하며 활동내용을 공유하고 내년 활동을 꿈꾸는 시간. 평화, 환경, 인권, 통일 등을 주제로 활동했던 각 회원Y 키다리들이 영상과 PPT, 사진 등으로 자기들의 활동을 소개하고, 배우고 깨달은 것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통일을 염원하는 사과나무 심기, 벽화 그리기, 텃밭 가꾸기 등의 활동을 직접 기획하고 실행하며 성장한 키다리들은 자신감, 배려, 참여와 연대를 배웠다고 고백했다.


한편 계획했으나 실행하지 못한 일들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는데, 이는 곧 2015년 키다리학교에 대한 기

대감으로 연결되어 봉사활동, 지역간 교류, 공감여행 등 활동적인 계획에 대한 포부를 나누었다. 한 해 동안 함께 했던 간사들을 향해 "앞으로도 쪽 우리 키다리와 함께 해요~ 사랑해요!!"라며 하트를 그리는 키다리의 외침을 마지막으로 다음을 기약하며 2014년 키다리학교 활동나눔을 마무리했다.



에피소드 넷, 또 다른 시작

2015년은 11개 회원Y에서 키다리학교를 운영한다. 그동안 키다리학교를 운영해왔던 회원Y는 목적과 방향을 재점검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키다리학교를 운영하는 회원Y는 키다리학교를 이해하고 한 해 활동을 계획하기 위해 운영진 워크숍을 개최했다. 키다리들과 함께 활동할 담당 실무자, 운영진인 회원Y 청소년부 위원, 대학생 자원지도자 등 18명이 참석하여 키다리학교 활동 사례 발표와 토론회를 진행하며 운영 노하우를 나누고, 운영진으로서의 각오를 다지는 시간이었다.

특별히 고양Y에서 참석한 김세준 운영진은 본인이 키다리학교 참여자(2012~13년)였음을 밝히며 키다리학교를 통해 본인이 느끼고 배웠던 경험을 바탕으로 후배들과 함께 활동하는 운영진이 될 것에 대한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3월 28일(토)에 개최되는 2015년 키다리학교 입학식을 시작으로 올 한 해 키다리들의 변화와 성장을 기대해본다. 

과거에 안주하지 말고 꿈꾸는 YWCA가 되라

정리 | 편집실

정희경 (1932년생)
 1968~1974 연합회 실행위원
 1966~1970 성균관대 부교수, 여학생처장
 1971 남북적십자회담 대표
 1971~1982 이화여고 교장
 1985~1988 현대고 교장
 1990~1992 계원예술고 교장
 1993~현재 학교법인 청강학원 이사장 및 상임이사
 1994~2002 연합회 실행위원
 1996~2000 15대 국회의원 (교육위원회 위원)
 1970~1972 서울대 사범대학 부교수
 2007~2010 연합회 후원회 이사장

이명혜: 정희경 선생님, 한평생 교육자의 길을 걸어오고 계신데 학교법인 청강학원에 이르기까지 선생님을 끝까지 교육의 길에 계시게 한 힘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나그네 인생길에서 꿈을 꾸었는데, 그것이 교육자의 길이었습니다. 항상 더 나은 교육자의 상에 대해 고민하며 살았던 것이 내가 살아온 20세기 격동의 시절을 재미있게 또 무척 고생스럽게 지나오게 한 것 같습니다. 내 삶에 분수 이상으로 많은 만남을 통해 다채로운 관계를 이루고, 교육계와 정계, 다양한 사회단체 활동에서 큰 마음과 베풀, 나눔의 즐거움을 알게 되었지요.

이명혜: 1968년 서울시 교육위원으로서의 활동을 시작으로 1996년 15대 국회의원 시절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교육관계 활동도 많으셨고, 특별히 건국 후 처음 열린 1971년 공식적인 남북대화에 남북적십자회담 대표로 활약도 크셨는데 당시 텔레비전에 비친 선생님의 환한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1971년 3월, 서울대 사범대 교수생활을 접고 이화여고 최연소 교장에 선임되어 중등교육 현장을 두루 거치고 모교에 대한 졸업생들의 애교심과 후원으로 각종 바자회를 개최하며 그 기금으로 류관순기념관도 지었지요. 늘 학생들이 이 시기에 필요로 하는 것, 이것이 없으면 미래를 생각할 수 없는 것들이 무엇인지 고민하며 활동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상담과 지도에 많은 시간을 보냈지요.

같은 해에 있었던 남북적십자 예비회담 대표가 되었고 1972년 그 유명한 7.4 남북공동성명 발표를 통해 남북간의 화해의 첫걸음에 함께하는 시간도 가졌는데 그 이후 더욱 평화통일을 위한 사회단체 활동에 관심이 갔어요. 그 중심에 YWCA의 북한어린이 분유 보내기 운동이 있었지요. 당시에 그랬지만 지금도 여전히 억압당하는 여성의 인권을 위해 YWCA가 계획을 세우고 프로그램을 진행해 나가는 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왼쪽부터) 연합회 이명혜 부회장, 정희경 명예연합위원, 연합회 차경애 회장, 유성희 사무총장(뒷줄)

이명혜: 이제 저희 한국YWCA와의 인연에 대해 여쭙 차례입니다. 1968~1974년과 1994~2002년 한국YWCA연합회 실행위원, 2007~2010년 후원회 이사장, 2011년부터 현재까지 명예연합위원으로 계십니다. 저희 YWCA 활동 중에서는 어떤 활동에 가장 관심을 가지시고 그 활동이 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선생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1968년 박순양 총무와의 만남을 통해 YWCA 활동을 시작했어요. YWCA 80주년인 2002년에 약속하지만 아시아 여성 발전기금 5천만원 기금을 후원했는데 가정이나 사회, 국가의 결정과정에 책임있는 결정권자로서의 여성의 역할이 중요하다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YWCA는 80주년의 길을 돌아보며 건강한 교육의 회복을 위한 여성의 자각을 일깨우고, 아시아 여러 나라의 여성의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아시아지도력 개발에 힘을 써야한다고 생각했습니다. YWCA가 보기에 다른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아 기초를 마련했는데 이제는 그것을 갚아야 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기금으로 연변의 민들레교류협회의 회관도 마련하고 간사를 훈련하여 지도력 개발에 계속해서 애쓰고 있으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2007년 3월에는 연변을 방문하여 여성지도자를 직접 훈련하고 교류하는 뜻 깊은 시간도 가졌습니다. 당시 척박한 환경에서도 씨를 뿌렸으니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이명혜: 2011년에도 연합회 실무자들의 교육훈련비로 기금을 후원해 주셨지요? 연합회 국부장 리더십 연수, 직원 해외파견과 연합회 전직원 연변평화 연수까지 기금을 의미있는 훈련에 사용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건강이 허락되면 연변에 다시 한 번 가보고 싶군요. 직원들이 작년 연변 평화연수에서 통일에 대한 꿈을 꾸며 통일한국을 준비하는 여성리더십을 기르는 계기가 되었다니 후원자로서 큰 보람을 느꼈답니다. 앞으로 기

회가 되면 다른 후원의 기회를 찾겠습니다.

이명혜: 올해는 한국YWCA 창립 93주년 해입니다. 지난 90주년 회원대회 기념행사에서는 'YWCA대상'을 수상하셨는데요. 100주년을 향한 YWCA가 기억하고 이루어가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YWCA는 여성운동 기관입니다. Y를 과거에 멈추게 하지 말고 새롭게 개선하도록 당부합니다. 규모가 크고 역사가 길기 때문에 안주하기도 쉬운 곳이니 항상 새롭게 하기를 늘 고민했으면 합니다. 요셉처럼 꿈꾸는 YWCA가 되고 시련과 역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YWCA가 되길 바랍니다.

이명혜: 선생님의 회고록의 제목이 "삶, 그 신묘한 색채들": '고난은 유익을 낳고' 와 '므낫세와 에브라임'인데요, 꿈꾸는 자 요셉처럼 늘 꿈을 꾸셨다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고, '반짝거리는' 선생님의 말씀이 늘 주변에 생기를 전했고 통찰력과 문장력이 많아 후진에게 감명을 주었다고 회고록에서 보았습니다. 요즈음에도 글쓰기는 계속하시는지요?

내가 거짓말을 책에 많이 했나 보네요. (웃음) 책 읽는 시간은 늘 나에게 즐거움이었고, 회고록을 쓴 두 해 여름은 남편과의 시간을 기억하며 인생을 정리하는 기회로 참 아름다운 추억을 나에게 선사했지요. 학생들이 살아갈 다가올 미래는 바로 내가 꿈꾸는 세상이라는 소신으로 강의하고 아이들의 멘토가 될 때가 기뻛고 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색채가 드리워졌던 것 같습니다.

이명혜: 어려운 시간을 내어 저희들을 맞아주시고 긴 시간 동안 여러 질문에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나눔과 베풀, 절제와 검소의 미덕을 모범으로 보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에너지 전환은 시민들로부터 가능하다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에너지 자립 현장을 탐방하고

매주 화요일 탈핵 캠페인을 하면서 거리의 시민들로부터 받는 질문은 원전이 없으면 전기를 어떻게 쓰느냐, 대안이 뭐냐, 전기값 상승은 어찌하려느냐 하는 우려였다. 이런 질문에 대해 어떤 실천과 대안을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숙제를 안고 23명의 탈핵원정대(회원Y 사무총장 20명, 연합회 국장 3명)가 원전제로인 오스트리아와 2022년 원전 폐쇄를 선언한 독일을 방문하여 재생가능 에너지 확대 정책과 실천사례 그리고 시민사회의 노력들을 경험하고 돌아왔다.

글 | 전현숙 (서울Y 사무총장)

재생가능 에너지로 에너지 자립은 가능하다

귀쌍은 오스트리아와 헝가리 국경에 있는 가난한 지역으로 1년에 3,500만 유로나 되는 막대한 돈을 에너지를 수입하는 데 지출하였던 곳인데, 지금은 재생가능 에너지로만 에너지 자급을 100%를 달성하고 전 세계에 이 사례를 '귀쌍모델'로 소개하고 자문을 해주는 곳으로 변신했다. 귀쌍 모델의 핵심은 지역에 풍성하게 있는 나무, 목초, 농업부산물, 햇빛을 활용하여 바이오 수송연료와 천연가스, 바이오 디젤, 전력 등을 생산해내는 것이다. 지도자의 의지에 주민설득과 협력이 더해져 에너지전환과 자립을 이루어 낸 것이다.

유럽은 겨울철 습하고 추운 날씨 때문에 난방에너지 사용이 많다. 자연스럽게 건물 에너지효율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주 지자체 내에 구성된 에너지 컨설팅팀(40명의 전문가)은 각 가구를 방문하여 에너지 진단을 하고,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과 재생에너지 사용에 관한 자문을 해준다. 또한 주택 거래시 에너지증명서를 반드시 비치하도록 하여 꾸준히 주택 에너지효율화를 진행시키고 있었다. 잘츠부르크 주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 에너지자립, 지속가능성을 달성하기 위해 지역난방 확대, 재생가능에너지 공급에 관한 목표치를 정하여 매해 실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잘츠부르크 주가 자랑하는 건물에너지효율을 극대화한 패시브하우스 할방 지역문화센터를 방문하였는데 이 건물의 특징은 단열, 축열, 태양열을 이용한 난방, 빗물의 효과적 사용, 공기 순환 등으로 어떤 에너지도 쓸데없이 소모되지 않도록 잘 구성된 곳이었다. 견학 이후에 YWCA 100주년

기념으로 버들캠핑장을 생태건물로 리모델링하여 에너지 교육에 활용할 뿐 아니라 상징적인 지역 센터로 모델링화하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나누었다.

에너지전환의 힘은 시민에게서 나온다

독일에는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이 880개나 된다고 한다. 우리가 방문한 뮌헨의 '벵(Beng)'은 250명의 회원을 가진 에너지협동조합으로 필요한 에너지는 지역에서 생산한다는 신념을 갖고 2002년부터 40여개소 이상의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였다. 안전한 에너지를 위한 생태적 투자를 통해 시민 스스로 에너지 매니저가 되고 수익도 보장받는 성공적인 주민참여를 이루고 있었다.


징엔의 쏘라 콤플렉스는 유한회사 형태로 조직되었는데 보덴호수 반경 50~100Km 이내 지역의 에너지 자립을 목표로 풍력발전, 태양광, 지천을 이용한 소수력 발전, 목재칩 등 에너지 믹스를 통하여 에너지 자원과 시민들을 엮는 다양한 모델을 보여주고 있다.

에너지 민주화를 위해서는 중앙집중에서 분산화로

독일에서는 재생가능 에너지에서 생산되는 전력량이 원자력에너지에 뛰어넘었는데, 2010년 이래로 40%가 늘어나 1470억kWh로 증가했다. 또한 재생가능 에

너지의 소유주가 개인이 40%, 농업종사자가 11%라는 숫자를 보며 독일의 에너지 전환은 개미군단으로부터 나오는 힘임을 느꼈다.

그러나 단지 선한 동기에만 호소하여 이루진 것은 아니고 독일정부가 2000년 제정한 재생가능에너지법(EEG)의 역할이 컸다. 이 법은 재생가능에너지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고 20년간 법에서 보장한 기준단가로 전기를 거래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은행금리(1% 미만)에 비해 3~4%의 수익을 올릴 수 있기에 급격한 성장을 가져온 것이다. 우리나라도 재생가능에너지 확대를 위해 2012년에 폐지된 발전차액지원제도(Feed in Tarrifs, FIT)를 다시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대규모로 중앙 집중화된 발전소보다는 각 지역의 에너지원을 충분히 활용하여 에너지 자립을 위해 움직이는 시민들의 모임을 독일의 여러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는 이 연수 후에 어떤 꿈을 가져야 할지를 나누며 역시 지역이 답이라는 결론을 얻는다. 각 지역에 알맞은 지역에너지계획 수립과 에너지 조례 제정, 분산형 전원 확대를 위한 활동과 지자체와의 거버넌스를 통해 지속가능한 세상을 만드는데 한발 더 앞으로 나아가고자 한다. 



(위) 귀쌍 신재생에너지센터

(아래) 월성1호기 소식을 듣고 쏘라 콤플렉스에서 반대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독일 시내에는 "후쿠시마는 어디에나 있다. 지금에야말로 원전의 스위치를 꺼야한다." 라는 내용의 현수막이 곳곳에 걸려 있다.



쏘라 콤플렉스의 태양광발전단지. 32,000개의 태양광 모듈이 설치되어 있다.



주민의 주체적인 활동으로 도심 속의 지속가능한 에너지자립마을을 이루어 낸 프라이부르크의 보봉마을을 둘러보는 연수팀.

지역과 시민이 함께 세운 햇빛 발전소

글 | 편집실



지난 3월 7일(토) 안양YWCA 회관 건물 옥상에 들어서는 안양군포의왕 시민햇빛발전소 1호기 준공식 현장을 찾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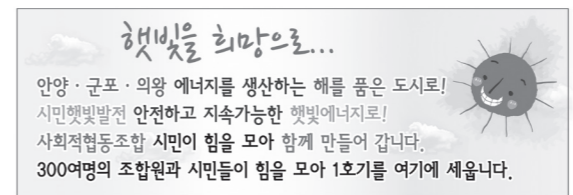
1호기 준공식에 모인 시민들에게 안양군포의왕 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 박길용 이사장은 “오늘 이 자리는 지역에서 대안 에너지 생산과 에너지 자급도시를 이루자는 큰 꿈이 시작되는 씨앗이다. 나아가서 에너지 절약과 자원낭비를 줄여 나가자는 실천적 시민운동의 자리이다.” 라고 인사말을 건네며 서로를 축하하고 격려하며 준공식의 시작을 알렸다.

한국이 탈핵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지역에서 사용할 에너지를 지역 스스로가 생산하는 에너지 자립이 필수적이다. 서울시는 지난 2012년 전국 최초로 서울시민햇빛발전을 시작해 에너지의 소비자인 일반 시민들이 생산 및 유지·관리 과정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전기의 소중함을 알고, 불필요한 전력 낭비를 줄이는 지역에너지 자립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최근에는 경기도 지역 내 성남, 수원, 시흥, 안산 등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의 형태로 시민햇빛발전소가 준공되고 있다.

안양군포의왕의 발전소는 안양시청 옥상에 준공될 예정이었으나 부지 선정에 어려움을 겪다가 지난해 10월 14일 안양YWCA 이사회에서 시민햇빛발전소 부지임대를 승인하고, 극적으로 12월 1일 안양YWCA 옥상으로 부지를 최종 확정지었다. 그리고 애초 100kw를 목표로 25kw로 용량을 결

정했는데, 이는 일반 가정이 한달에 250w의 전기를 사용한다고 가정했을 때 10가구에 공급 가능한 양이다.

처음에는 1년 정도 기간을 예상하고 시작한 일이 2년 이상 걸려 이날의 준공식까지 이르렀으니 참석한 조합원들의 마음은 얼마나 벅차올랐을까. 이필운 안양시장은 “에너지 절약을 향해 이토록 노력하는 조합원들의 마음이 에너지를 무심코 쓰고 있는 시민들에게도 전달 되어 경각심을 일깨우길 바란다”고 격려사를 전했다.



차경에 한국YWCA연합회 회장은 축사를 통해 “핵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대도시에서 소비하는 과정에서 밀양과 같은 지역에서 희생을 강요당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지역 에너지자립운동은 정의 운동이고 생명을 살리는 일이다.

지역에서 시민들이 태양광 에너지의 생산자가 되는

것은 에너지 절약의 주체가 되는 것이며, 다른 지역에도 고통을 전가하지 않으려는 책임성을 가지는 모습이다. 오늘 이 시민햇빛발전이 안양YWCA 건물 옥상에서 준공하는 것이 큰 의미가 있고 이것이 지역에서 함께 상생하며 탈핵을 향해가는 귀한 발걸음이다.”고 전해 참석자들의 큰 박수를 받았다.

처음 조합원들이 모여 시민햇빛의 결의를 다지고 출자금을 출자한 후 근 2년간 다양한 업체와 접촉하며 일을 진행하며 부지 선정 등의 문제로 고비도 있었지만, 조합원들의 인내와 다양한 노력에 힘입어 지금에 이른 안양군포의왕의 시민햇빛발전소. 많은 조합원들의 걱정과 우려가 있었지만 에너지 자립을 향한 첫 발을 디디게 되었고 참석한 조합원들도 함께 기뻐했다.

추운 겨울이 지나면 따뜻한 봄이 오듯이 이제 시민햇빛발전에 햇빛이 들기 시작했다. 만물이 소생하는 봄에 시민햇빛발전소 1호기 역시 생명을 가지게 되었고 햇빛이 존재하는 한 그 생명력은 유지될 것이다. ☀

시민햇빛발전소 이것이 궁금하다

(출처: 안양군포의왕 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햇빛 발전소란

태양광 발전소를 말한다. 경기도나 서울권은 채광과 부지 확보 등을 위해 학교, 공공기관, 아파트 혹은 단독 주택 옥상 등에 설치하고 있다. 근래에는 대규모 발전시설 이외에도 개인이 텃밭을 가꾸듯 태양에너지를 직접 생산하여 가정에서 사용하며 절기절약을 실천하고, 또한 타 지역에 고통을 전가하지 않고 지역에서 생산하여 바로 쓰는 효율 좋은 에너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인식 고취 운동도 일어나고 있다. 안양시에서도 '베란다 미니태양광'을 작년 이어 올해도 시행하고 있다. 안양시청(녹색성장과)에 신청을 하면 아파트 베란다 등 공동주택에 저렴하게 설치를 해주는 제도이다.

사회적 협동조합

주식회사는 달리 협동조합은 조합원이 된 모두가 동등한 1인 1표의 권리를 가지는 회사이다. 그래서 누구의 입김이 더 크게 작용하는 회사가 아니다. 시민들이 햇빛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난 후에 그 뜻을 실현할 매개체로 사회적 협동조합을 선택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다. 또한 사회적 협동조합은 일반 협동조합과 달리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이 안 되기에 그 의미나 목적이 더욱 뚜렷하다.

전기의 판매

햇빛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는 발전회사에서 전량구매한다.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제도에 따라 발전자회사들은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구매해야 한다. 안양군포의왕 시민햇빛발전 사회적 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전기도 물론 전량 판매가 되고 그 수익금은 다음 2호기 건설을 위한 자금으로 충당된다. 또한 햇빛발전의 홍보와 교육 등에도 사용될 예정이다.

‘비저닝 2035’ 운동 핵심에 ‘청년성 강화’ 한국YWCA 구조 내에 국제운동위원회 가동 필요

글 | 원영희 (연합회 서기, 연합회 실행위원, 세계YWCA 이사)



(위) 2035 중점 청년성 강화 그룹토의 후 요약 발표하는 원영희 이사
(중간) 프린스턴YWCA 이사들과 함께
(아래) 한국Y의 탈핵운동을 특별히 언급하며 훌륭한 운동이라 설명한 프린스턴Y의 CEO 주디스 후튼.

젊은 여성 지도력 강화를 목적으로 ‘비저닝 2035(Visioning 2035)’를 구체화하기 위한 논의 차, 세계YWCA 이사회에 다녀왔다. 원래 이사회는 정기적으로 1년에 1회이며 수시로 스카이프 화상 회의를 했는데, 이례적으로 작년 10월 콜럼비아 보고타에서 열린 이사회 이후 5개월 만에 다시 회의를 소집한 이유는, 당연히 올해 2015년이 YWCA 세계대회가 있는 해이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세계Y 임원단(회장, 재무이사, 부회장 6인)은 총회(World Council) 준비와 역할 분담 논의, 그리고 ‘비저닝’ 구체화를 위해 지난 3월 2일부터 6일간 임시 이사회를 소집했다.

또 다른 목적도 있었다. 여성폭력추방(VAW, Violence Against Woman) 운동 확대와 여성지위향상에 관한 UN 산하 CSW (Commission on the Status of Women) 회의 준비와 포럼, 거리 행진 주관과 참여를 위한 기획의 목적도 있었다. 때마침, 1922년에 미국Y의 정식 회원Y로 가입해 지금까지 활발한 여성운동을 펼쳐 온 미국 YWCA 소속, 뉴저지(New Jersey) 주의 프린스턴Y(YWCA Princeton)에서 32차 여성 지도자상 시상식에 세계Y 이사회 전체를 초대했다. ‘2015 패니 플로이드 인종차별철폐 정의구현 상(Fannie E. Floyd Racial Justice Award)’ 수상자 9명 중에는 세계YWCA 사무총장인 나랏자이 굼본즈반다(Nyaradzayi Gumbonzvanda)도 포함되어 더욱 의미 있는 초청이었다.


20년 후인 2035년은 세계YWCA 운동에 큰 도약을 이루는 해가 될



(위) 탈핵을 주제로 아침묵상을 인도하는 원영희 이사
(아래) 잠시의 휴식시간에도 쉬지 않고 논의하는 젊은 세계Y의 이사들

다. 1898년 세계 17개국에서 326명이 참석하여 첫 세계회의를 런던에서 연 이래로, 그동안의 운동을 총평 가하는 기회와 운동의 도약을 준비하는 기간이 된다. 세계YWCA 이사회는 이번 3월 프린스턴 이사회를 통해, ‘비저닝 2035’운동, 즉 앞으로 20년간 운동의 핵심을 ‘청년성’에 두기로 결의했다. 이미 세계YWCA는 지난해부터, 기존의 3대 운동 핵심 ‘세대 간 대화, HIV와 AIDS 방지, 여성폭력추방’운동의 제1운동의 명칭을 청년성을 강화한 ‘젊은 여성 지도력’(Young Women's Leadership)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방콕에서 열리는 2015년도 제28차 YWCA세계대회에서는 Y의 청년성, 젊은 여성지도력 양성, VAW 등에 관련한 워크숍과 그룹토론들이 활발히 준비되리라 생각하며, 한국YWCA도 이에 따른 준비를 해야 하리라 생각한다.

아울러 이번 이사회에서는 매일 회의 시작 전에 빠짐 없이 묵상기도회를 했다는 점이 감사하다. 전 세계 다양한 문화와 종교권에 속한 120개 회원국을 두고 있는 세계YWCA(Young Women's Christian Association)의 정체성 중에 가장 위기를 맞고 있는 부분이 기독교성(Christianity)이다. 때로는 일부 이사들이 기도회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때마다 그야말로 손을 들고, 공식적으로 우려를 표했었는데, 이번 이사회에서는 모두들 깊은 기독교 신앙을 담은 영상과 음악, 말씀으로 묵상을 준비해 함께 은혜를 나누어 정말 감사했다. 특별히 3월 4일(수) 아침 묵상을 인도하며 한국YWCA 탈핵운동을 소개할 기회를 얻어 기뻐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지구를 방사능으로 잔뜩 오염시켜 후손들에게 넘겨주어서는 안 된다”는 말로 마무리하자, 처음에는 반응이 없던 모든 이사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을 표했다.

한국YWCA는 세계 어느 나라 YWCA보다 조직과 운동성이 살아있다. 90주년 기념식에서 선포한 우리 운동들이 세계로 퍼져나가고, 세계Y 운동을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려면 한국YWCA의 국제운동성도 이제는 더욱 성숙해져야 한다. 따라서 한국YWCA 구조 내에 국제협력위원회를 조직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본다. TF팀이나 업무협조 차원의 조직이 아니라, 국제 이슈에 따른 단계별 국제 운동 체계화, UN, 세계적인 여성기업, 국제여성단체 등과 손잡고 운동하고, 젊은 글로벌 여성지도력 양성과 국제협력 기관 파견, 직원 교환 프로그램 등등 산재한 국제운동 영역을 담당해야 하는 위원회, 즉, 국제이슈 전문가들을 모신 국제운동 혹은 국제협력위원회 조직이 시급하다. 이로 인해 탈핵운동이 전 세계로 퍼져 나가고, 글로벌 운동에 관심이 많은 젊은 여성들이 YWCA로 물려오는 꿈을 꾀다. 

여성 목회자 연구와 다중문화 사역 집중 미국연합감리교회 박희로 목사



지난 2월 송도에서 열린 아파메이(APAMEI, The Asia-Pacific Association of Methodist-related Educational Institutions) 컨퍼런스에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15개국에서 70여개 감리교 계통 학교 실무자들이 참석했다. 조직된 후 첫 컨퍼런스에 참석한 미국 연합감리교회 총회고등교육사역부 목회자 평생교육 디렉터인 박희로 목사를 만났다.

Q. 박희로 목사님, 만나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이번 한국 방문이 '아태지역 감리교계통학교 협의회(APAMEI)컨퍼런스'인 것으로 아는데요, 목사님의 사역에 대해 잠깐 설명해 주십시오.

연합감리교회는 1천2백8십만명의 멤버를 가지고 있는 세계적인 교회이고 미국 안에는 57개의 연회가 있고 46명의 감독들이 이 연회들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미국 밖에서는 20명의 감독들이 섬기는 76개의 연회가 아프리카, 유럽, 그리고 필리핀에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내의 약 5만 명의 목사님들과 미국 밖의 약 1만4천3백 명의 목사님들이 현재 연합감리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섬기는 총회고등교육사역부는 이러한 전체 연합감리교회를 섬기며 모든 목회자 안수 과정과 평생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역부에서 목회자 평생교육 디렉터로 담당은 연합감리교 목회자와 평신도 평생교육, 온라인 교육, 여성목회자와 소수인종 목회자를 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보람은 많은 크리스찬들에게 기독교교육을 접하게 하고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한 바로 '온라인 기독교 교육사이트'인 UMC 사이버 캠퍼스(www.umccybercampus.com)의 운영입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목회자와 선교사들, 성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 캠퍼스이죠. 영어의 장벽이

없습니다. 강의안은 80개의 언어로 제공되고 56개의 언어로 강의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Q. 상당히 큰 규모의 연합감리교회 내의 평생교육부와 UMC사이버캠퍼스의 디렉터 역할을 하시네요. 연합감리교회 내에서 여성목회자 연구와 다중문화사역을 하시고 특히 소수민족에 특별히 관심이 많으시다 들었습니다.

미국 연합감리교회 가운데 성도가 천 명 이상인 교회가 천 이백 여개가 있는데 이 가운데 백여 곳은 여성 목회자가 담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여성 목회자들의 협동적이고 창의적인, 섬기는 리더십 스타일에 관심이 갔어요. '예수님이 섬기는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여성 목사님들은 그 점에서 예수님과 더 많이 닮지 않았을까'라는 질문에서 출발해 2009년부터 시작한 백여 명의 여성 목회자 리더십 스타일에 관한 조사 연구가 2014년에 'Breaking Through The Stained Glass Ceiling'이란 제목의 책으로 출간되기도 했습니다.

또 미국 내에서 소수민족 목회자이지만 큰 백인교회를 섬기시는 분은 없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2012년에 흑인 남자 목회자 19명과 아시아계 목회자 1명을 찾아 그들을 네트워킹하여 서로가 서로에게 멘토 역할을 하게 돕는 컨퍼런스를 열었는데 그 이후 매년 열리고 있습니다. 이

분들은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개척자이며 '상처받은 치유자(wounded healer)'의 모델이셨습니다. 이분들은 미국 전역의 젊은 세대 목회자와 평신도들을 멘토링하고 코칭하여 이 땅에서 참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할 것입니다.

또한 이번 방한의 목적이 된 APAMEI 컨퍼런스는 2011년 연세대 신학대학 안에 미국감리교 아태지부를 만든 후, 2012년 아시아지역 감리교 계통학교 총장과 학장들의 만남이 계기가 되어 시작된 것입니다. 아태지역 감리교 관련 기관들이 교육협력과 신학적인 고민들을 나누기 위해 결성한 협의체인데 내년에는 '상처받은 치유자'로 불리는 이 소수민족 목회자들이 아태지역 목회자들을 만나 교류하는 자리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Q. 정말로 많은 목회자들에게 서로에게 힘이 되고 지원이 되는 네트워킹을 만들어주셨습니다. 또한 세계 각지에 계신 목회자들의 멘토링에도 관심이 많으시다구요.

연합감리교회 안에서 국제 코칭연합회 자격을 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전세계를 다니며 여성 목회자 컨설팅을 진행했습니다. 인상에 남는 일은 2013년 필리핀에 갔는데 때마침 내린 폭우에 차가 못 다녀 3일간 이 컨퍼런스를 위해 걸어온 여성 사역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감사하지요. 온 세계를 다니며 지치고 힘든 목회자들을 일으켜 세워주는 작은 네트워킹을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제게 맡기신 삶의 목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Q. 기독교여성시민운동체인 한국YWCA에 대한 목사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보고 자란 YWCA는 저에게 늘 친근합니다. YWCA어린이집을 다녔는데 Y가 어린이집 사업을 하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항상 Y에서 봉사하시고 이모님이신 퀸즈Y 홍인숙 전 총무님 덕분에 자라면서 보고 들은 것이 바자회를 하고 누구를 도와주고, 청소년 프로그램을 만들고 하는 일들이었는데 그런 것들이 늘 저의


잠재의식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분들의 사명감이 제가 지금 여러 나라에서 여성과 소수민족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게 한 씨앗이 된 것 같습니다.

한국YWCA의 의식적인 프로그램들, 예를 들어 북한어린이 돕기 운동이나 핵에 대한 반대 운동, 또한 여성 지도력을 발굴하고 그들을 격려하는 일들을 계속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한국 여성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도록 돕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Y의 주력운동인 평화운동은 꼭 필요한 일입니다. Y가 교회와 함께 세상의 화해와 평화를 위해 노력하는 단체였으면 합니다. 최근 핵발전소가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 사회정의를 위한 노력에도 큰 응원을 보내고 싶습니다. Y가 하는 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이를 보고 배워 이 사회를 지켜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Q. 마지막으로 한국교회와 한국교회 내 여성 리더십에 대한 당부의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올해로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한국 땅에 선교의 씨앗을 뿌린 지 130주년이 됩니다. 한국 감리교 130주년을 맞으며 더러는 편협한 신학에서 벗어나서 열린 마음을 갖고 한국 교내 돌아볼 부분들을 복음의 눈으로 성찰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미국 내에서 이미 여성의 권리에 대해서는 다 이루었다고 하지만, 조금만 눈을 돌리면 힘들게 목회하는 여성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제도적으로 안수조차 막혀있어 좌절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미국 내 57개 연회에도 여성 감리사는 있지만 아직까지 아시안 여성 감독은 없습니다.

한국 교회가 여성 목회자들의 복지와 평신도 여성들의 리더십을 격려하고 훈련하는 일에 주력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여성 리더십을 발굴해 섬김의 모델로서, 상처받은 치유자로서 이들이 이 사회에서 하나님나라가 앞당겨지도록 실천으로 앞장설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은 세상이 되리라 믿습니다.  (글: 편집실)

영화 '사랑에 대한 모든 것'

영화 '사랑에 대한 모든 것'은 현존하는 최고의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과 그의 부인 제인과의 사랑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이와 함께 과학적 세계관과 종교적 세계관의 갈등, 현실과 이상과의 갈등을 보여준다.

글 | 최대광 (정동제일교회 부목사)



스티븐이 대학시절 파티에서 한눈에 반한 제인은 인문학을 전공하는 독실한 성공회신자다. 그러나 스티븐은 영화에서는 무신론자로 나오지만, 실상 불가지론에 가깝다. 무신론은 신을 부인하는 것이고, 불가지론은 아직 신을 찾지 못했다는 말이다. 스티븐 호킹은 신을 인정하면, 연구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는 신을 부정하지도, 인정하지도 않는다.

종교의 문제에 관한 한 스티븐과 제인은 평행선을 달리지만, 이 '차이점'이 오히려 이 둘의 사랑을 깊게 한다. 야외파티에서 제인은 윌리엄 예이츠의 행복찬목동의 시를 암송한다: “별을 관찰하는 이들로부터 배우기를 추구하지 말라. 그들은 별이 지나는 통로를 좇고 있을 뿐이니” 현상에 마음을 뺏기지 말고 본질과 근원에 관심을 가지라는 것이다. 이 시를 들은 스티븐은 “브라보”라고 하면서 잔을 부딪힌다. 다름을 수용할 내적 공간이 있었던 것이다.

별이라는 현상의 근원은 무엇일까? 이것은 과학의 질문이면서, 종교의 질문이기도 하다. 기독교인은 모든 것의 근원은 하나님이라고 고백한다. 이에 대해 스티븐은 별이 수명이 다해 사라지면 블랙홀이 되고, 결국엔 시공간이 사라지는 원점 혹은 ‘시공간적 특이점’이라는 강의를 듣고 이런 가설을 세운다:

“아인슈타인의 이론이 맞다면 우주는 팽창하는 거야. 우리가 시간을 되돌린다면, 우주는 계속 작아지겠지. 만일 그 과정을 끝까지 되돌린다면, 시원적 시점에서 일어난 일들을 알 수 있겠지.”

별이 사라진 자리에 블랙홀이 생기고, 블랙홀이 사라진 자리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공간이 사라지면 시간도 사라진다. 별이 사라진 이 마지막 지점은 곧 별의 시작점이라는 것이다.

시공이 사라진 그 물리적 없음(無)은 시공을 초월한 신의 자리일 것이다. 스티븐과 제인은 손을 붙들고 원무를 춘다. 종교와 과학 혹은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가 사랑의 춤으로 융해되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영화 중간 중간 들리는 바그너의 장르를 깬 실험적 음악은 인문학과 물리학, 과학과 종교 그리고 불규칙(양자역학)과 규칙(상대성이론)의 결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스티븐의 루게릭병이 시작된다. 팔을 움직일 수 없고, 다리 역시 부자유스러워진다. 그리고 병원에서는 2년이상 살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제인은 괴로워하던 스티븐에게 용기를 주며, 그와 결혼을 약속한다. 몸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루게릭병 환자와 매일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다. 처음엔 이들은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내며 행복한 생활을 이어가지만, 제인은 이내 힘에 겨워한다.

세월이 흐르며, 스티븐과 제인은 각자 다른 사람을 만나 두번째 결혼생활을 이어 나간다. 그러나 이들은 여전히 좋은 감정으로 서로를 대하며 삶을 살아간다. 사랑은 ‘같이 있음’이기도 하지만, ‘서로를 배려해주며 떨어져 있는 것’이기도 하다. 스티븐은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보내주어야 했고, 아내는 더욱 더 능숙한 사람이 스티븐 곁을 지켜 주어야 그의 장래가 열린다고 생각하며 이 현실을 받아들인다. 이 영화의 원제는 ‘모든 것의 이론’ (The Theory of Everything)이다. 모든 것의 이론은 ‘사랑’인 것이다.


다시 블랙홀로 돌아가자. 스티븐은 별이 사라지면서 생기는 블랙홀이 ‘시공간적 특이점’으로 되돌아가면서, 그 자체가 사라진다. 곧 시공이 사라진다고 말한다. 그리고 우주의 출발 역시 시공이 사라진 그곳에서 시작된다고 말한다. 무(無)에서 출발하여 무로 돌아간다는 것

이다. 스티븐이 보기엔 여기에 신의 존재는 없다. 대신 ‘없음’이 자리하고 있다. 그러나, 종교적으로는 이 지점이 신비주의 혹은 심층종교의 영역이다.

중세 기독교 신비주의자인 마이스터 엑카르트(St. Meister Eckhart)는 하나님을 ‘넘어선 신성 Godhead’이라 했다. 하나님은 알려져 있지만, 신성은 알려져 있지 않다. 신성은 영원한 신비이다. 엑카르트에게 있어 없음은 무한이고, 영원한 자유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 (히 11:3). 없음으로 인해 있음이 생긴다. 있음은 없음의 드러난 현상일 뿐이다.

후에 목소리를 잃고 전자기기로 자신의 뜻을 표현하던 호킹은, 무에서 무로 돌아가는 우주와 우리의 삶, 양자역학과 일반 상대성 이론 곧 규칙과 불규칙의 경계가 존재하지 않는 이 우주를 보면서, 사랑이란 차이와 다름의 경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말한다. 생각과 성별의 차이, 인종적 차이, 정상과 비정상의 차이와 경계가 허물어지는 무경계가 우주의 본질이라고 감동의 강연을 한다.

“우리 모두는 다릅니다. 각자의 삶이 제아무리 불리해 보여도, 누구에게나 성공하고 이루어 낼 수 있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 한 희망 역시 존재하기 까요”

인간의 노력 역시 경계가 없다. 경계가 없음, 바로 이것이 기독교의 사랑이다. 요한 1서에서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했다. 사랑에 대한 모든 것이 아니라, 사실 모든 것은 사랑이다. 사랑하여 제인과 헤어졌고, 루게릭 병에 걸린 그가 박사가 되어 강의하게 된 것도 사랑이다. 젊은 시절 스티븐과 제인이 세상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우주의 근원인 무(無)를 말하며 원무를 추었을 때와 같다. 그렇다. 죄가 분리라면, 사랑은 하나됨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모금워크숍 이후 열린 생명나무 음악회

글 | 여진경 (부산YWCA 회원사업팀 팀장)

2014년 6월, 부산의 6명의 여성들이 굳은 의지를 품고 서울 명동 한복판에 섰다. 하선규 회장, 김혜경 사무총장, 김문진 이사, 김혜진 이사, 성인심 상무이사, 여진경 팀장. 그동안 진행해 왔던 회원모집과 수익사업이 정점에 이르러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야 할 시점에 모금워크숍은 참여하는 이들에게 부담감과 함께 또 하나의 기대감을 가지게 하였다. 3회기에 걸친 모금워크숍과 2회에 걸친 후속 모임을 통해 어느새 모금은 부산YWCA에서 당위적인 것으로 자리하고 있었다.

소박한 출발을 내딛다.

모금워크숍에 참여했던 6명은 우리가 느끼는 중요성과 의식을 공유하는 데서 멈출 것이 아니라 자원지도자와 실무자가 함께 배우기 위해서 모금워크숍 이후, 2014년 11월 (주)도움과나눔 최영우 대표를 모시고 '모금특강'을 개최했다. 이러한 첫 걸음은 우리 모두를 다음 걸음으로 옮기게 하였다. 모금에 집중할 의지를 모아 실천하기 위해 모금위원회가 2015년에 구성되었고 부산Y의 신발끈을 다시 동여매며 모금활동에 새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고자 했다.

모금실행에 대한 두드림의 시작은 부산Y생활협동조합원들이다. 생협 조합원은 Y회원과 별도로 운영되고 있다. 이들 중에는 Y회원인 조합원도 있지만 아닌 조합원도 많아 이들을 대상으로 Y회원으로 가입할 계획을 세웠다. 생협 조합원들의 리스트 정리 작업을 시작으로 Y회원가입 유무를 파악한 후, Y회원가입 권유가 가능한 명단을 정리했다. 전체 조합원 중 가능한 인원이 32명이었고, 이들에게 후원안내 편지와 부산Y리플릿을 우편으로 보냈다. 우편물이 도착할 때쯤 전화로 취지를 말씀드리고 후원에 함께 해 주실 것을 독려했다. 조합원 탈퇴에 대한 우려와 거절 때문에 주춤거림이 있었지만 힘차게 달음박질하기 위한 준

비운동이 되었다.

부산Y가 그동안 모금활동의 유사한 모습을 갖추고 활동해 온 것이 회원모집운동과 음악회이다. 음악회는 지역에 시민운동을 알리고 기업, 교회, 개인 후원자를 발굴하기 위해 매년 개최하고 있다. 음악회를 통한 모금활동은 사전에 이뤄진다. 음악회는 본부 중심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지부(부속시설)가 매년 교대로 준비위원회를 담당하고 있다. Y의 시민운동을 위한 기금마련이 본부만의 몫이 아닌 본부와 지부가 함께 감당해야 할 역할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은 부산Y가 가진 큰 재산이다.

2014년 부산Y 생명나무 음악회는 '김정택 단장과 함께하는 SBS오케스트라'와 진행하였다. 출연진인 김정택 단장이 음악회와 Y운동을 연결하여 음악회를 연출함으로써 관객들의 호응도를 높였다. 음악회의 취지에 맞게 고리1호기 폐쇄 서명운동도 함께 이루어져 Y운동을 알릴 수 있는 좋은 장이 되었다. 기획이 모금워크숍 전에 이루어져 모금전략에 따라 음악회를 진행하기에는 촉박한 면이 있었으나 출연진이 관객들에게 Y운동을 알리고 Y의 중점운동인 탈핵운동을 소개하는 등 몇 가지 모금전략을 적용한 점에서 새로운 변화에 대한 좋은 출발이 되었다.

함께함이 주는 행복과 즐거움

모금워크숍에 참여했고 모금위원회가 구성되었다고 해서 일순간에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부산Y는 기존에 진행했던 회원모집운동과 음악회를 포함한 모금활동과 거액모금을 점차로 늘려가는 계획을 전개해 나가려고 한다. 회원모집운동과 음악회는 기존의 방법을 그대로 고수하는 것이 아니라 모금전략에 준하여 그 방법을 조금씩 변화시켜 나가고자 한다. 그 중 하나의 방법은 회비 증액이다. 기존 회원 대상으로 회비를 연3만원에서 연5만원으로, 월3천원에서 월5천원으로 증액하



음악회를 준비하며 (왼쪽부터) 천현진 간사, 이신영 간사, 김혜경 사무총장

고 신입 회원들에게는 인상된 회비로 시작하려고 한다.

또한, 모금관련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생협조합원과 후원이 중지된 회원 등에게 전화모금이 원활히 이루어지게 하고자 한다. 그 외에도 자원지도자와 실무자에게 가중되어 있는 음악회 모금방법을 변화시키고, 새로이 시도하는 거액 모금처 발굴 등이 새롭게 달려야 할 코스로 주어져 있다. 무엇보다 모금을 어떻게, 얼마나 할 것인가도 중요하지만 새로이 구성된 모금위원회를 통해 부산Y와 함께함이 주는 행복과 즐거움을 후원자들에게 어떻게 선사할 것인가가 더 중요한 것 같다.

중거리 이상의 달리기 경주나 자전거 경기 따위에서, 기준이 되는 속도를 만드는 선수를 페이스 메이커(Pace Maker)라고 한다. 자신의 우승이 아닌 다른 사람의 우승을 위해 달려야 하는 페이스 메이커. 우승후보의 우승을 위해 격려하고 도와주는 것이 그의 역할이다. 부산Y의 페이스 메이커가 되어줄 후원자들에게 메마른 땅에 생명의 바람을 일으키고 세상을 살리는 분명한 가치를 보여줌으로써 다른 어떤 곳보다도 부산Y와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소중한 것인가를 느끼게 하기 위해 부산Y는 새로운 달림을 시작한다.

생명의 바람, 당신과 함께여서 행복합니다.
세상을 살림, 당신과 함께여서 즐겁습니다.

“북한친구들에게 꿈과 희망을”

글 | 김수연 (연합회 북한어린이돕기사업단 간사)



2014년은 대북인도지원단체에게 가장 힘든 한 해였다. 십 수 년의 대북인도지원 역사를 가진 유수한 단체들이 단 한건의 물자반출도 하지 못한 채 2015년을 맞이했다. 그나마 한국YWCA는 함께 나누는 세상과 함께 2013년 말 추진했던 지원이 늦어지면서 지난해 1월 북한에 분유를 보냈고 이는 2014년 유일한 대북인도지원이었다. 1997년부터 전개해오던 북한어린이돕기운동에 박차를 가하면서 2014년 모금액은 2013년보다 11% 증가했다.

2014년은 Y어린이집의 어린이들이 작은 고사리 손으로 저금통에 동전을 모아 감사와 평화를 나누는 캠페인 활동이 많았다. 특별히 11개의 Y어린이집에서는 세계빈곤퇴치의 날로부터 추수감사주일까지(2014년 10월 17일~11월 16일) 하나님께 주신 것들을 혼자 소유하기보다 나눔으로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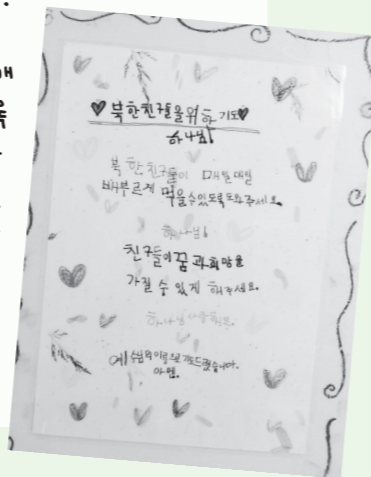
10월 누리과정에는 ‘세계 여러나라’라는 주제가 있다. 세계빈곤퇴치의 날을 맞아 2013YWCA 영유아 평화교육 교재내용을 중심으로 교육이 진행되었다. 글로벌시대에 발맞춰 세계 여러 나라의 상황과 빈곤이라는 주제를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우리와 가장 가까운 곳, 북한에 살고 있는 친구들의 영양 상태에 대해서도 알고 평화관련 활동을 하며 일상에서부터 다양한 참여와 실천을 돕기 위한 캠페인이었다.

이 캠페인은 YWCA 북한어린이돕기 영상을 보고 다문화가정동화 ‘정식이가 들려주는 고향이야기’를 읽으며 북한에 있는 친구들의 상황에 대해 배우기도 하였다. 북한어린이들에게 편지쓰기, 기도문 쓰기 등의 활동도 전개하였다. 일상적 실천 활동을 강조하며 가정에서부터 착한 일을 할 때마다 칭찬 스티커를 모으고, 이와 함께 용돈은 저금통에 넣는 등 모금운동도 진행했다. 저금통으로 모금운동에 참여한 Y어린이집 어린이들에게 칭찬 상장을 수여하고 사진도 찍으며 추수감사주일에 맞추어 감사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엄마 엄마 북한에 있는 친구들의 영상을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나는 매일 매일 배부르게 먹는데 북한에 있는 친구들은 너무 말랐어요. 내가 먹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을 나눠주고 싶어요. 오늘 어린이집에서 저금통을 쳤어요. 여기어다가 내가 나눠주고 싶은 만큼 넣으래요. 엄마 엄마 기도할래요.”

하나님 북한친구들이 매일매일 배부르게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친구들이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사랑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북한어린이돕기 영상을 시청한 청주Y어린이집 어린이-



광복 70주년을 맞이하는 2015년에도 Y어린이집에서는 그리스도의 가르치심을 삶에 실천하는 Y목적을 토대로 캠페인을 전개하고자 한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며 하나님이 주신 공동체인 가정에서부터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5월을 기점으로 24개의 Y어린이집에서 북한어린이돕기운동에 참여할 예정이다. 어린이날을 기념하며 Y어린이집 어린이들은 선물 받는 날로 인식하기보다 북한에 사는 친구를 생각하며 나눔을 삶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일시적인 나눔 실천이 아니라 다양한 활동(그림그리기, 편지 쓰기 등)을 통해 지속적인 나눔 실천이 되기를 바란다. 이를 위해 향후 북한어린이돕기사업단에서는 Y어린이집 원아들의 평화 활동 결과물들을 이용한 홍보물 제작도 계획 중이다.

YWCA어린이집에서 나눔으로 평화를 실천하는 활동을 확산함으로써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라는 요한 일서 3장 18절 말씀처럼 어렸을 때부터 나눔과 사랑의 기독교적 가치를 배우고 평화통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길 바란다. “모든 아이들의 생명은 존중되어야 하며 어린이는 최상의 건강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는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내용을 토대로 삶과 가정에서부터 나눔을 실천하는 평화와 화해의 기쁜 소식을 기대해본다.

북한어린이돕기 모금 현황

2015년 2월 1일 ~ 2월 28일

구분	기부자명단	금액
CMS 기부	강승아, 강현중, 고세영, 고은희, 박지영, 구정혜, 권인택, 권순복, 권민혜, 권진, 김가현, 김건세, 김경숙, 김경희, 김기동, 김명희, 김미애, 김병호, 김상은, 김수연, 김애련, 김영자, 김은경, 김일곤, 김재연, 김정린, 김주영, 김주현, 김진용, 나윤지, 남희숙, 명진숙, 문권희, 문미란, 문인수, 민선영, 박보람, 박영수, 박영순, 박용옥, 박은실, 박임희, 박진화, 박효정, 배정미, 백정미, 백혜진, 서명희, 송록희, 송윤경, 신인숙, 안은정, 안정희, 안혜진, 양종원, 엄효정, 오소영, 오시창, 오영란, 오현숙, 원영희, 유도희, 유성희, 윤명선, 윤수정, 윤혜식, 이남희, 이명혜, 이순덕, 이슬이, 이영미, 이영숙, 이윤숙, 이은영, 이정숙, 이종경, 이주영, 이지은, 이천진, 이항재, 이행자, 이혜진, 임강숙, 임국미, 임진영, 임향옥, 장경자, 장미란, 장선희, 장윤우, 전정미, 전하예, 전현주, 정경란, 정동신, 정서연, 정순, 정용, 조영미, 조은영, 주락현, 진인식, 채정희, 최수선나, 최우림, 최지혜, 최형선, 하은경, 한송이, 한영수, 한주경, 한혜경, 함희경, 홍기자, 홍선심, 홍수진, 홍현정, 황홍백 (총 118명)	1,916,000
개인 기부 (월계좌이체기부, 기념기부 등)	전인선, 신남호, 김미, 홍인숙, 방원철	10,235,000
협력교회	기쁜소식교회, 약전평강교회, 산들바람공동체교회	414,210
기관 및 단체	마포구 신수동 주민센터	126,350
회원YWCA	남원Y, 순천Y, 청주Y	509,760
합 계		13,201,320



YWCA 직업훈련기관 실무자 교육 및 관장연구모임 우리학교는 친친와이파이즌 토론회 신입사무총장 연수

연합회 소식

3월 월례아침기도회

3월 3일(화) 연합회 강당에서 3월 월례아침기도회가 열렸다. 장운재 목사(이화여자대학교 기독교학과 교수)가 '하나님의 평화'라는 말씀으로 평화의 메시지를 선포했다. 자리에 모인 회원들은 YWCA가 이 땅에 생명, 정의,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용기를 가지고 동참할 수 있도록, 한 알의 썩어지는 밀알이 되도록 마음을 모아 기도했다. (자세한 내용은 5쪽에)

1주년을 맞이한 탈핵 불의날 캠페인

3월 10일(화) 탈핵 불의날 캠페인 1주년과 후쿠시마 사고 4주년을 맞아 노후원전 폐쇄, 특별히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반대하고, 재생에너지 사회로의 전환을 촉구하는 거리행진을 가졌다. 명동 한국YWCA회관 앞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소재한 광화문까지 걸어가며 핵발전이 아닌 재생에너지 사회로의 전환이 가능함을 알렸다. 이날 행진에는 연합회와 7개 회원YWCA(남양주Y, 부천Y, 성남Y, 수원Y, 안산Y, 인천Y, 하남Y) 회원 등 120여 명과 여성환경연대, 차일드 세이프, 한국교회협의회(NOCK) 등 탈핵운동단체들도 함께 했다.

키다리학교 운영진 워크숍 · 키다리학교 활동나눔

2월 10일(화) 연합회 강당에서 11개 회원Y 키다리학교 운영진과 연합회 실행위원, 실무자가 모인 가운데 운영진 워크숍이 진행됐다. 기존 운영 회원Y(고양, 광주, 대전, 부산, 서울, 안양, 청주)와 신규 참여 회원Y(성

남, 창원, 충주, 하남)가 2015년 키다리학교를 기획하며 활동 계획에 대한 정보를 나눴다. 아울러 2월 24일(화)부터 25일(수)까지 키다리학교 활동나눔이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28쪽에)

YWCA 직업훈련기관 실무자 교육 및 관장연구모임

2월 11일(수)부터 12일(목)까지 버들캠프장에서 전국 27개 여성인력개발센터, 새일센터, 여성회관 등 관장과 실무자 70여 명이 모여 YWCA 직업훈련기관 실무자 교육 및 관장연구모임을 가졌다. 박동순 안양Y 사무총장이 '젠더 관점에서 NCS 다시보기'를 주제로, 유성희 연합회 사무총장이 'Y의 직업훈련기관으로서 자부심 고취 및 인식, 관점 정립'이라는 주제로, 이은영 돌봄과살림위원회 위원장이 'NCS 체제 전환과 Y 직업훈련의 방향과 준비'라는 주제로 교육과 협의를 진행했다.

우리학교는 친친와이파이즌 토론회

2월 13일(금) 연합회 강당에서 'POSCO-YWCA 우리학교는 친친 와이파이즌-공감으로 소통하는 건강한 학교문화' 토론회를 개최했다. 대전YWCA 청소년 문화의 집 백운미 간사의 보고와 더불어 양지원 매니저(포스코 사회공헌그룹), 조아미 교수(명지대 청소년지도학과), 김정숙 교사(서울 대신중), 인신환 장학사(충북교육청 진로인성교육과), 전호성 기자(내일신문)의 지정토론이 있었다. 지난 3년간 진행된 본 사업에 대하여 평가하고, 청소년의 사회문제를 예방하고 건강한

학교문화를 만들기 위해 학생과 교사, 학교가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는 시도의 중요성에 대하여 논의했다.

사무총장 탈핵 해외연수, 에너지 전환 컨퍼런스

5년 이상 경력의 회원YWCA 사무총장 20명과 연합회 국장 3명이 탈핵운동의 선진 사례와 에너지 자립마을을 탐방하기 위해 2월 21일(토)부터 3월 2일(화)까지 독일과 오스트리아를 다녀왔다. 머무는 동안 월성1호기 수명 연장 결정 소식을 접하고 YWCA 사무총장 탈핵연수단의 이름으로 사진을 찍어 다수 매체에 보도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32쪽에) 또한 3월 3일(수)부터 6일(금)까지 독일에서 열린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한 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을 위한 종교의 역할' 컨퍼런스에 연합회 박은실 국장이 참가해 한국YWCA의 탈핵운동을 소개했다. 한국의 핵발전 상황을 독일의 탈핵운동가들과 공유했다.

신입사무총장 연수 · 중견사무총장 국내연수

2월 25일(수)부터 26일(목)까지 신입 사무총장 12명이 모인 연수가 진행됐고, 2월 26일(목)부터 27일(금)까지 사무총장 경력 5년 미만 사무총장 31명이 대전에 모여 국내 연수를 가졌다.

씽크머니 제1차 기초강사교육

2월 27일(금) 서울YWCA 대강당에서 2015 씽크머니 1차 YWCA 금융강사 교육(기초과정)이 진행됐다. 1월 19일부터 6주간 온라인 교육과정을 이수한 씽크머니 예비강사들은 오프라인 교육에 참가하여 YWCA와 씽크머니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향후 강사 활동을 위한 자세와 준비 방법을 배우며 강사로서 자신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번 교육에서는 저

소득 및 소외계층의 기회 확대를 목표로 체험형 금융 교육을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으며, 예비 YWCA 금융강사 78명이 참석했다.

제59차 유엔여성지위위원회(UN CSW59) 한국YWCA 대표 참가

'베이징+20: 베이징 선언과 행동강령'이라는 주제로 3월 9일(월)부터 3월 20일(금)까지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제59차 유엔여성지위위원회가 개최되었다. 세계의 여성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2015년 20주년이 되는 베이징 선언과 행동강령을 토대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여성의 역량 강화 전략을 마련하는 자리다. 세계YWCA는 유엔여성지위위원회에 YWCA의 목소리를 담은 성명서를 제출하였으며, CSW 준비워크숍과 젊은 여성들을 위한 포럼, 3.8 세계 여성의 날 거리행진이 진행됐다. 한국YWCA는 세계YWCA의 대표의 일원으로 한미미 연합회 실행위원과 이연주 YWBS(청년 인터넷 방송국) 8기 아나운서를 파견했다.

제2차 '오늘에서 내일을 보다' 콜로키움

YWCA생명비전연구소에서 주최하는 제2차 콜로키움이 3월 10일(화) 오후 2시 연합회 강당에서 '오늘의 평화, 내일의 평화'(정주진 평화학 박사), 'NO WHERE, NOW HERE'(이지원 부천Y 간사), 광지역 실행위원(송실사이버대 교수)의 발제와 종합 토론으로 진행됐다. 한편, 제1차 콜로키움은 2월 11일(수) '오늘에서 내일을 보다'라는 주제로 여성, 평화, 청년, 생명의 각 분야별 전문가(구미정, 김정수, 김엘리, 주철환, 백소영, 문미란, 장미란)들의 발제와 종합 토론으로 진행됐다. 콜로키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YWCA생명비전연구소 웹진(<http://blog.naver.com/ywcamail>)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씽크머니 제1차 기초강사교육 제59차 유엔여성지위위원회 한국YWCA 대표 참가 제2차 '오늘에서 내일을 보다' 콜로키움

복부

서울YWCA | 성지희 간사

서울Y 회장 이 · 취임예배



신구회장 이 · 취임예배를 2월 10일(화) 오전 10시에 강당에서 드렸다. 2년 동안 수고한 차귀숙 회장의 노고를 치하하고 앞으로 서울

Y를 이끌어갈 조종남 신임회장의 취임을 축하했다. 조 회장은 취임인사에서 “깨어 기도하고 열려 소통하면서 창립 100주년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서울Y를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히며 기도와 참여, 후원으로 함께해 주기를 당부했다. 앞으로 더욱 활기차게 전진할 서울Y를 기대한다. (사진설명: 차귀숙 전임회장(왼쪽), 역대회장 이름과 재임기간이 새겨진 목걸이를 걸고 있는 조종남 신임회장)

강릉YWCA | 정경진 간사

독거어르신 반찬나눔 봉사

강릉YWCA는 지난 겨울동안 매주 화요일마다 아산사회복지재단 후원으로 반찬을 완제품으로 전해드리다가, 3월 3일(화)부터 매주 화요일 각 위원회와 노인돌보미들이 반찬을 직접

인천YWCA | 최슬기 간사

회장 취임식

2월 24일(화) 인천YWCA 대강당에서 회장 취임식을 열고 김말숙 회장이 제19대 회장에 취임했다. 김말숙 회장은 2003년부터 자원지도자로 가정폭력상담소, 재정 건물관리, 요양원재가복지센터운영위원장과 부회장을 역임하였다. 탈핵과 평화운동, 청소년 문제에 대해 더 많은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만들어 정성을 더해 독거어르신에게 전해드리는 봉사를 시작했다. 봉사는 연말까지 지속될 예정이다.

속초YWCA | 최훈실 간사

평화기도회

매주 화요일 10시 양형철 목사(속초 살롱교회)의 인도로 각 부속기관의 실무자들이 모여 평화기도회를 가지고 있다. 북한의 정책이 변화하고 북한인권운동의 진정한 의미 속에서 긍정적 변화를 이룰 수 있도록 모두 함께 간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으며 이 기도회를 발판으로 지역주민들의 통일에 대한 의식 전환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춘천YWCA | 이복희 본부장

‘행복하고 따뜻한 아파트 만들기’ 사업

2015년 지역맞춤형일자리 창출사업으로 ‘행복하고 따뜻한 아파트 만들기’ 사업이 선정되어 2월 9일(월) 고용노동부, 춘천시와 지원약정서를 체결했다. 지역사회인식개선 사업과 아파트 경비원의 쾌적한 근무환경 만들기 사업으로 진행되며, 지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아파트, 가장 근무하기 좋은 아파트’를 만들자는 슬로건을 갖고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경기

고양YWCA | 남궁해경 국장

키다리학교 뒤편다!

선배 키다리들과 운영진의 면담을 통해 올해 함께 활동할 키다리들 45명을 뽑았다. 3월 7일(토) 45명의 키다리들이 참여한 가운데 키다리학교 오리엔테이션이 진행되었다. 먼저 키다리학교를 경험했던 키다리들이 진행부터 간식, 안내, 세팅까지 모두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 키다리학교의 첫 시작을 열었으며, Y소개, 키다리학교 소개, 키다리학교 세우기 워크숍, 공동체 게임을 통해 서로 소개하고 알아가는 시간들을 가졌다. 다양한 특성을 가진 키다리들의 모임이 한 해동안 어떤 시너지를 낼지 기대하는 마음을 갖는 시간이었다.

부천YWCA | 이지원 간사

아기학교 졸업식

2월 12일(목) 영 · 유아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아기학교의 졸업식이 있었다. 부천Y 김영순 회장의 축사로 시작된 이번 졸업식은 1년 동안 진행된 아기학교의 여러 모습이 가득한 사진 슬라이드쇼로 추억을 나누고, 엄마와 아기 모두 ‘아름다운 세상’을 함양하는 것으로 서로를 축하하며 마무리됐다. 아기학교를 졸업한 후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새로운 시작을 하는 우리 아이들이 YWCA에서 배웠던 나눔과 돌봄을 기억하고 밝고 건강하게 자라나기를 소망한다.

수원YWCA | 정지영 간사

돌보미 자치회 정기총회

수원Y에서 활동 중인 돌보미들의 모임 자치회가 지난 2월 14일(토)부터 28일(토)까지 총 3회에 걸쳐 정기총회를 진행했다. 살림돌보미 자치회 외 두 곳은 170여 명의 회원들이 참석



했으며, 2014년 사업 및 회계보고에 이어 회칙개정, 2015년 사업계획안 심의가 있었다.

안산YWCA | 문성은 간사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졸업과 입학식

안산 청소년문화의집은 2월 27일(금)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꿈의 날개’ 졸업식 및 입학식을 개최했다. 졸업생들은 다양한 동아리활동과 체험학습 등을 통해 진로에 대한 꿈을 키우게 되었고, 또래 친구들과 함께 생활했던 시간들이 잊지 못할 추억으로 남을 것이라고 소감을 이야기하며 꿈의 날개는 졸업하지만 계속해서 Y-틴으로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하였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는 중학생 1~2학년을 대상으로 2개반 40명으로 편성됐으며 학생들의 기초학력 및 인성과 창의력 향상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안양YWCA | 김희정 간사

본부직원 연수

2월 6일(금)부터 7일(토)까지 남이섬으로 2015년 직원연수를 다녀왔다. 공동체 프로그램을 통해 서로를 알아가고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앞으로 다양한 탈핵운동 실천방향과 비전을 자유롭게 토론하며, 고민할 수 있는 자리였다. 남이섬을 함께 둘러보며 심과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고, 활동가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다시 한번 되새겼다.



제29회 안양Y 정기총회

제29회 정기총회가 1월 20일(화)에 열렸다. 회원 1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감사패 및 봉사상을 비롯하여 선교비 전달식이 있었다. 이어서 2014년 사업보고와 결산보고, 2015년 사업계획과 예산안 심의를 통과시키고 신입이사, 재신임이사, 공천위원을 선출하였다. 아울러 23년간 봉사해 오신 김지영 이사는 명예이사로 추대되었다. 안양Y를 위해 헌신할 새로운 자원지도자들과 함께 생명의 바람을 일으킬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한다.

의정부YWCA | 이미진 간사

창의수학 영재지도사 직업훈련 교육

의정부Y새로일하기센터는 3월 23일(월)부터 6월 3일(수)까지 경력단절 여성 및 취업을 필요로 하는 여성 22명을 대상으로 무료직업훈련 '창의수학 영재지도사' 교육과정을 진행한다. 이 교육은 이브레인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교구를 활용한 수업형식의 다양한 연산비법으로 창의수학과 자발적 학습참여를 도모하며, 대화와 소통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협동 활동을 통해 공감, 배려, 나눔의 사회성 함양 및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 프로그램 운영 전문지도사를 양성하는 함으로써 경력단절 여성들의 취업 및 사회진출에 있어 직업분야의 선택적 폭과 개인의 역량이 넓어지는 계기가 될 것이다.

중부

대전YWCA | 김지찬 팀장

탈핵 불의날 캠페인

3월 3일(화)부터 대전YWCA 회관 앞에서 2015년 제1차 '대전YWCA 탈핵 불의 날 캠페인'을 진행했다. 3월 11일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4주기를 앞두고 펼쳐진 이날 캠페인은 매주 화요일 낮 12시 대전YWCA 회관 앞에서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 불의날 캠페인은 인간의 힘으로는 막을 수 없고 꺼지지 않는 재앙의 불인 핵의 위험을 상기시키는 취지에서 자연에너지를 사용하고 정의롭고 평화로운 불을 밝히자는 의미로 진행되는 캠페인이다.

제천YWCA | 이경희 부장

자원지도자 실무자 웃놀이

2월 24일(화) 자원지도자와 실무자가 함께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하나님께 기도하며 단합하는 시간을 가졌다. 쫄소팀과 이겼소팀으로 나누고 서로 단합하는 시간을 가진 가운데 쫄소팀이 우승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이 지경을 넓혀주시는 가운데 겸손히 인내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자기 삶에 실천해보며 달려갈 것을 기대한다.



청주YWCA | 김지현 간사

이사·위원 연구모임

2월 24일(화) 크리스찬 하우스에서 이사·위원 연구모임을 가졌다. 청주Y는 50주년 기념사업인 '청년운동'을 주제로 백소영 교수(이화여대 기독교사회윤리학)의 '청년위기사대! 기독교 여성의 사명과 역할'의 주제발제를 듣고, 청주의 청년YWCA상에 대한 조별토론을 진행했다.



충주YWCA | 김애영 부장

노인일자리 대축제 및 노인사회활동 참여자 모집

2월 25일(수) 호암체육관에서 충주시 노인사회활동을 하는 6개 전담기관 공동으로 노인일자리 대축제 및 참여자 모집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우수활동어르신 시상 및 참여수기공모당선자 시상과 공연 등 다양한 행사와 함께 금년도 참여자 모집이 있었다. 어르신 3,000여 명이 본 행사에 참여하여 고령의 나이에도 사회활동참여에 대한 욕구가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는 행사였다.

천안YWCA | 이연주 대리

자원봉사자 발대식

2월 25일(수) 2015년 자원봉사자 발대식을 진행했다. 총 4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 중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예배, 헌사, 2014년 귀감이 되는 자원봉사자에게 감사장 수여, 2015년 자원봉사부 계획 등을 공유하고 식사를 통해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중요한 시간이 되었다.



장 담그기

2월 25일(수) 천안YWCA에서 전통의 맛 '장 담그기' 시연회가 진행되었다. 매년 천안YWCA에서는 장 담그기 시연회를 열어 전통의 맛을 알리고 생명 먹을거리 운동을 전개 중이다. 천안시 지역주민을 초청하여 장 담그기에 관련한 이론적 강의와 직접 체험해보는 시연회를 통해 우리 고유 음식의 우수함과 맛을 알리고, 공장에서 가공되어 여러 가지 화학 약품이 섞여 유통되는 음식이 아닌 발효되어 살아있는 생명 먹을거리를 지역사회에 전파하여 전통의 문화와 바른 먹을거리 확산 운동을 진행하였다.

서부

광주YWCA | 손유영 부장

새이사, 공천위원, 상임위원 오리엔테이션

3월 5일(목) 2015년 총회를 통해 선출된 새이사, 공천위원, 상임위원을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였다. 이번 오리엔테이션에서는 정윤순 광주Y 회장의 Y목적과 정체성에 대한 강의를 시작으로 이사, 공천위원 및 상임위원의 역할과 책임, YWCA운동성이 갖는 의미와 각자의 임무와 역할에 따른 교육으로 진행됐다. 자원지도자로서의 자세와 사명감을 기를 수 있는 뜻 깊은 자리가 되었다.



전주YWCA | 김은진 부장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협약식 및 전달식

2월 6일(금) 전북하나센터에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전주풍남로타리클럽과 사단법인 전국한우협회와 '북한이탈주민 종합정착지원 협약식 및 전달식'을 전주YWCA 회관에서 가졌다. 전북하나센터는 매월 전입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정착지원 제반사항에 따른 지역사회 기관과 상호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형성하기 위하여 협약식을 진행했고, 특별히 이번 협약식 후에는 '설 명절 맞이 사랑 나눔 전달식'을 갖고 북한이탈주민 190여 가정에 한우불고기과 조리용 프라이팬, 쌀 등을 전달했다.



목포YWCA | 곽수현 부장

3·8 여성의 날 캠페인

3월 6일(금) 자유시장에서 상인들과 목포 시민들과 함께 3·8 여성의 날 캠페인을 진행했다. 캠페인을 통해 목포시민 400여 명에게 홍보전단지과 3·8 여성의 날을 기념하는 꽃을 나누었고, 3·8 여성의 날의 역사와 의미에 대해 알리는 시간이었다.



Y-틴과 함께하는 신생아 살리기 모자뜨기 캠페인

목포YWCA 청소년위원회에서는 2월 7일(토) 목포YWCA 3층 강당에서 'Y-틴과 함께하는 신생아 살리기 모자뜨기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 캠페인은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일교차가 심한 지역의 신생아들에게 체온조절과 보온에 필요한 털모자를 기부하여 신생아들이 설사, 말라리아, 폐렴 혹은 출산 합병증으로부터 생명을 지켜주기 위한 캠페인이다. 이날, Y-틴 회원들이 처음으로 만든 모자를 전해 받을 아프리카 아이들에게 마음을 나누는 희망편지를 쓰면서 나눔을 몸소 실천하는 소중한 경험을 했다.

순천YWCA | 신현아 간사

'해피누리' 정월대보름행사

3월 4일(수) 조곡무료급식소 '해피누리'에서 전국공공운수노조 동방지부와 함께 정월대보름행사를 진행하였다. 자원봉사자들이 준비한 사랑의 점심식사와 더불어 윷놀이, 투호놀이, 떡메치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지역주민들과 독거노인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따뜻함을 전해줄 수 있는 풍성한 정월대보름 행사였다.

여수YWCA | 박선주 간사

에너지 절약 협약식

에너지시민연대지원사업으로 3월 13일(금) '실천해보자! 에너지 절감 5%'라는 주제 아래 에너지 절약 운동 협약식을 가졌



다. 협약 단체로는 여수엠블호텔, 사랑재활요양병원, 여수한빛교회로 기존의 아파트와 주택이 아닌 비가정 영역을 대상으로 여수에서는 처음 시도되는 에너지 절약운동이다. 이 사업은 앞으로 두 차례의 에너지 절약 교육, 두 번의 아나바다 나눔장터와 세 번의 에너지 캠페인, 재생에너지 견학과 에너지의 날 행사를 주관하는 것으로 진행될 예정인데 중점운동인 탈핵과 발맞추어 여수시 에너지 절약의 새로운 장을 마련하게 된다.

제주YWCA | 이유리 간사

한국병원과 간병사 파견 업무 협약

3월 3일(화) 헤인의료재단 한국병원에서 다인간병실 간병사 파견 업무 협약식을 진행하였다. 환자(보호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간병서비스를 원활하게 진행하여 치료에서 편안함과 안정감을 제공하고자 진행된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한국병원과 제주YWCA는 간병서비스를 이용하는 환자 및 보호자들에게 높은 만족도와 신뢰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귀포YWCA | 김수진 간사

통계청 제주사무소와 업무협력(MOU) 체결

서귀포YWCA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2월 13일(금) 호남지방 통계청제주사무소와 업무협력(MOU)을 체결했다. 이날 체결

한 MOU에는 서귀포지역의 여성인재 양성과 우수조사원 채용을 위한 교육과정 개설과 운영에 대한 상호협력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호남지방통계청사무소는 협약에 따라 통계청 및 각종 통계조사에 대한 교육을 지원하고,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일자리를 원하는 여성들에게 강좌를 개설 및 운영하기로 했다. 서귀포의 통계조사 우수조사원 양성과정은 3월 16일(월)부터 3월 20일(금)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동부

대구YWCA | 이수빈 간사

이사·위원·실무자 영성훈련 개최

2월 27일(금)부터 28일(토)까지 1박2일 동안 청도 달리다굼하우스에서 이사·위원·실무자 40여 명이 모여 영성훈련을 가졌다. 박주영 목사(우리교회)의 개회예배를 시작으로 '선배에게 듣는 대구YWCA 90년 그리고 100년'이란 주제로 대구Y 최정숙 회장의 비전특강이 진행됐다. 주강사로 국제교회 전동주 목사를 모셔 '90주년의 축복(과거), 100주년을 향한 비전(미래), 지금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현재)'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듣고 기도회를 가졌다. 영성훈련을 통해 이사·위원·실무자로서 하나님 안에서 YWCA 생명사랑공동체 정신을 회복하고, 대구YWCA 100년을 향한 도약의 시작으로 나



와 너, 우리의 영성을 새롭게 깨우는 것에서부터 시작하고자 다짐했다.

포항YWCA | 송근선 간사

사무총장이 취임 예배

3월 11일(수) 오전 11시 포항YWCA 강당에서 제8대 이은숙 사무총장, 제9대 신정숙 사무총장이 취임식을 가졌다. 1부 개회예배와 2부 이·취임식으로 진행된 가운데 1997년부터 18년간 포항YWCA 사무총장으로서 청소년, 소비자, 지역사회를 위해 열정으로 헌신해 온 이은숙 이임 사무총장에게 공로패와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였다. 제9대 신정숙 신임 사무총장은 1994년부터 1997년까지 포항YWCA 사무총장으로 재직하였으며 그 후 위원 및 이사로 꾸준히 활동하였다. 취임사를 통해 앞으로 YWCA의 발전을 위해 헌신할 것을 다짐했다.

김해YWCA | 배정숙 부장

'장년 취업 인턴제 사업 설명회' 실시

김해여성인력개발센터는 3월 5일(목) 강당에서 (주)대신물산 외 18개 기업체 관계자가 참여하여 장년 취업 인턴제 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 사업은 장년층(만50세 이상) 미취업자에게 기업체 인턴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현장적응력을 높이고, 정규직으로의 취업가능성을 제고하며, 기업에는 유능한 인력채용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로 장년층 미취업자 및 실시기업의 신청을 받고 있다.



마산YWCA | 이애라 부장

경상남도 섬유제품 소비자분쟁 심의위원회

섬유제품(옷, 침구, 가방, 신발 등) 관련 소비자자와 사업자, 소비자자와 세탁업자 간의 분쟁발생 시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원만한 합의를 돕고 나아가 피해구제까지 지원하는 경남섬유제품 소비자분쟁 심의위원회가 매월 마지

매주 금요일에 진행된다. 경상남도소비자단체협의회 사업의 일환으로 경상남도 소비생활센터와 함께 상담과 위원회 결정에서 그치지 않고 사후활동까지 지원해 주는 심의위원회가 경남지역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사천YWCA | 정희경 간사

방문교육 대상자 오리엔테이션

사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2월 27일(금) 오전 10시 사천YWCA 강당에서 방문교육지도사와 대상자 등 54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5 방문교육 대상자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했다. 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대상자정과 방문교육 지도사들의 장기자랑을 통해 친밀감을 높이고 방문교육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양산YWCA | 박경하 간사

제9회 정기총회 개최

1월 29일(목) 양산미션문화센터에서 150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9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김정숙 사무국장의 진행으로 2014년도 사업보고와 2015년도 부서별 사업계획안을 보고했다. 이 날 공로상에는 노춘자 이사가, 봉사상에는 고경임 회원이 수상을 했고, 부회장에는 여명숙 이사가, 신임이사에 남혜숙, 김정 회원이 당선되었다. 2015년 한 해도 취약한 여성의 권익을 향한 성장과 발전을 위해 생명의 바람을 우리 지역사회 속에서 펼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여성, 청소년



년, 어린이, 환경, 다문화, 소비자 등 다양한 사업으로 지역사회에서 앞장 서는 양산Y로 거듭남을 다짐하며 정기총회를 마쳤다.

진주YWCA | 김은주 간사

다문화가족 '아시아의 설날 이야기' 행사

진주Y 다문화교육부에서는 2월 12일(목) 음력설을 지내는 한국, 중국, 몽골, 베트남, 태국 등의 아시아권 설날이야기를 준비했다. 나라별 이주여성들이 한국식 인사법을 배우고, 각국의 설 문화도 이야기하며 아리랑을 비롯한 각국의 민요 부르기 및 민속놀이 대항전으로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달랬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각국의 명절과 문화를 공유하며 뜻 깊은 시간을 보냈다.



창원YWCA | 정미영 간사

노후원전폐쇄를 위한 성명서 발표 및 탈핵캠페인 행진

2월 9일(월) 오전 11시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경남탈핵연대와 함께 노후원전폐쇄를 위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노후원전인 고리1호기와 월성1호기의 폐쇄를 촉구하는 성명서 발표 후 도청 앞에서 정우상가까지 가두행진을 하며 시민들에게 노후원전의 위험성을 알렸다. 창원YWCA는 경남탈핵연대와 함께 매주 화요일 노후 원전 폐쇄를 위한 '행진'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예정이다.



돈 많이 드는 '간병인' 걱정, 이제 끝! '포괄간호서비스'의 모든 것



건강했던 A씨가 어느 날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졌다. 다행히 수술이 잘 되어 나쁜 상황은 면했지만, 가장인 A씨가 책임지던 생계가 위태로워졌다. A씨가 입원해 있는 동안 A씨의 아내가 수술비와 생활비, 자녀의 학비를 대기 위해 생활 전선에 뛰어 들다보니 A씨를 간병할 사람이 없었다. 간병인을 구하려니 하루 일당으로 6~8만 원이 필요하다는. 계산기를 아무리 두드려 봐도 답은 나오지 않고 눈앞이 캄캄한 상황. 정말 답은 없는 걸까?



'포괄간호서비스'를 알고 계신가요?

많은 환자의 가족들이 위의 사례와 같은 고민을 안고 있다. 특히, 맞벌이 가정이 대부분인 요즘, 가족 중 누군가가 입원할 경우 오랜 시간 곁에서 간병하기 어려우게 사실이다. 수술비, 입원비, 간병인 비용까지 부담이 더해지면 가계가 뒤흔들릴 정도의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특히 내 가족을 맡기는 일이기 때문에 믿을 만한 간병인을 구하는 것도 힘들다. 이런 고민을 하는 환자의 가족들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013년 7월부터 '포괄간호서비스 시범사업'을 시행했다. 포괄간호서비스란 환자 가족들의 간병에 대한 부담을 해소하고 입원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병동 간호인력을 현재의 2배로 확충하여 환자에게 필요한 입원서비스를 간호인력이 직접 제공한다. 절차에 따라 포괄간호서비스를 신청하게 되면, 간병인 비용으로 1일 6~8만 원 가량을 부담하던 것을 1일 입원료로 약 3,800~7,450원(6인실 기준)만 추가로 부담하면 전문 의료교육을 받은 간호사나 간호조무사에게서 밀착 간호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올해 1월부터는 포괄간호서비스에 보험 급여를 적용하는 '포괄간호서비스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시행 중이며, 현재 민간 및 공공병원 26개 기관에서 운영 중이다.

'포괄간호서비스'만의 특별한 점

포괄간호서비스는 기존의 간호서비스와 비교했을 때 간호인력을 대폭 확대해 숙련된 의료서비스를 환자에게 제공한다. 기존에 간호사 1명이 25명의 환자를 담당했다면, 포괄간호서비스를 통해 간호사 1명당 환자 10~12명, 즉 2배 수준으로 늘리고 병실 환경을 개선해 환자들이 더욱 질 좋은 서비스를 받으며 입원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

도움이 필요할 때, 이렇게 신청하세요!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환자와 보호자가 담당 주치의와의 상담을 통해 포괄간호 병동에 입원할 수 있다. 시범사업 참여 병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병원 및 검진기관 및 전화 문의(1577-1000, 02-3270-6964)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